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1호  
2026년 2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contact@snuaa.org



라스베이거스 CES 기간인 1월7일 미주와 한국의 스타트업 동문들이 '더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 모였다. 미주동창회가 주최한 '제1회 SNU Global Connect @ CES 2026'에 참가한 동문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이팅을 외치고 있다.

## 미주동창회 주최 '제1회 SNU Global Connect @ CES 2026' 성료 서울대 창업 동문들, 라스베이거스에서 뭉쳤다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디어가 투자로 연결되며, 혁신은 현실이 됩니다. ... 서울대의 젊은 동문 여러분, 새해 대박 나세요.”

황효숙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이 환영사를 마치고 100여 명의 동문들이 일제히 큰 박수와 함께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세계 최대 IT·테크 전시회인 CES 기간, 창업이라는 큰 꿈을 품고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동문들에게 황 회장의 '대박'이라는 한마디는 무엇보다 가슴에 와 닿는 응원이었을 터다.

지난 1월 7일 미주동창회 주최로 열린 제 1회 SNU Global Connect에는 준비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뉴욕·뉴저지 등지에서 스타트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동문들은 이날 각자의 사업과 구상 중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활

발한 네트워킹을 펼쳤다. 행사장은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려는 열기로 가득 찼다.

CES 기간 중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김종섭 한국총동창회장의 배려가 큰 힘이 됐다. 행사가 열린 '더 라스베이거스

유흥동, 우리 서울대도 이곳이 비좁아질 만큼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한국총동창회 산하 관악경제인협회의 창업 지원 활동을 소개하며, 미주의 '글로벌 커넥트'와 연계해 보다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신이지만 창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창업에 관한 한 서울대는 국내 부동의 1위 대학일 뿐 아니라 세계 대학 창업 랭킹에서도 70위권에 오를 만큼 창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피치 세션이었다. 박재홍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끄는 BOS반도체를 비롯해 이동호 매드업 대표, 이태우 SN디스크버리, IoT 기술을 상품화한 하순희 MySmax 대표 등 공대 교수 출신 창업가를 포함해 총 18개 동문 기업이 무대에 올라 사업을 소개했다.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한편 제2회 SNU Global Connect는 내년에도 CES 기간에 맞춰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ES 무대에서 다시 한번 서울대 동문들의 도전과 혁신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실리콘밸리부터 한국까지 100여 명 한자리에 18개 동문 스타트업 사업 소개에 뜨거운 박수 김종섭 한국총동창회장, 행사 장소 무료 제공

컨트리클럽'은 김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으로, CES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 또한 뛰어났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삼성전자도 수년간 바로 이곳에서 행사를 열었다"며 "이제는 규모가 커져 더 큰 장소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본부에서도 김주한 연구부총장, 김영오 공과대학장, 강건욱 창업지원단장 등 다수의 보직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주한 부총장은 "저는 의대 출

미주동창회 선발 장학생 10명 자기소개

16, 17면

SNU Global Connect 행사 참가 후기

4, 5, 6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51-308-0796 | Email: contact@snuaa.org

동창회보 구독자님들께서 동문 지인 중 아직 동창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께 다음 달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고 싶은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메일(contact@snuaa.org) 또는 미주동창회 주소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왼쪽부터) 황효숙 회장은 지난해 10월 홈커밍데이 때 모교를 방문해 유홍림 총장에게 캠퍼스 종합화 50주년을 기념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6월 평의원회의를 마친 뒤 18대 집행부 임원들을 초청해 수고에 감사하고 동창회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황 회장이 홈커밍데이 제주 여행을 함께 한 뉴욕의 문소자 동문과 함께 하트 포즈를 취했다. 황 회장은 제주 여행 동문들과는 단톡방을 만들어 다들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부 방문에 나선 황 회장이 고 강수상 동문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열정의 리더’ ... 10만 달러 쾌척

## 황효숙 미주동창회장 취임 7개월 인터뷰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은 사대 65학번이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황효숙 회장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다. 통화 중이 아닐 때에는 미주 전역의 동문들과 줌(Zoom) 영상으로 만나 미주동창회 운영과 각종 행사 준비를 논의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가 매주 참여하는 줌 미팅은 최소 서너 차례에 이른다. 미주동창회 이사회와 집행부 회의는 물론, 각 지부 회장 모임,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장학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칙위원회 등 각종 정기 회의는 물론 미주동창회가 마련한 SNUAA 포럼과 기업 네트워크 모임 그리고 매주 열리는 AI 디스커버리 클럽까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SNU 글로벌 커넥트’ 준비 당시에는 하루 한두 시간의 쪽잠을 자며 준비위원들과 뛰었다. 그 결과로 SNU Global Connect @CES 2026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젊은 동문들의 영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주동창회로 향한 번곡점에 서게 되었다. 이 모멘텀을 계승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위해 SNUAA EDGE Committee를 기획 중이다.

“지난 7개월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야기를 낳기 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실제 육아는 직접 겪어봐야 그 고단함을 알 수 있듯,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만큼 힘에 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 귀한 책임의 무게를 절감하며,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역대 모든 회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황 회장은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모교와 동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미주동창회의 존재 이유와 네트워크가 지닌 저력을 체감하면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황 회장은 최근 미주동창회에 사재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큰 금액을 기부하고 싶었어요. 예산이 넉넉하면 젊은

동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운영할 수 있고, 연세 드신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를 위해 이희윤 지속가능발전기획고문이 준비 중인 전용 앱 개발에도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을 텐데... 동창회의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예산이 조금만 더 뒷받침되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미주동창회는 동문들이 보내주는 후원금과 십시일반 연 100달러의 동창회비, 종신이사 가입비의 3분의 1 그리고 동문 기업의 광고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예산은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할 수 없어 안타까



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며 “하지만 이제는 재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19대 차기 회장은 은행에 가서 간단한 서명만 하면 기존 계좌를 승계해

###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는 투명한 재무 시스템 구축 IT 혁신 · 지부 회장 회의 통해 미주 전역 하나로 묶어 SNU 글로벌 네트워크 성공, 미주동창회 위상 드높여

울 뿐입니다.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교회 헌금을 대하는 마음으로 단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퀵북(QuickBooks)을 활용해 모든 회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나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지출 내역은 물론 언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거기에 돈은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그동안은 회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넘겨받아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솔직히 취임 초기에는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데이터가 부족해 예산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넉 달 정도 해보고 나서야 어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 19대부터는 인수인계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부했다.

18대 미주동창회에는 박현아 사무총장, 임동근 총무국장, 손창수 재무국장, 홍선례 광고국장 등 실무 집행부 외에도 변정민 Brain Network 국장과 여러 동문이 고문으로 참여해 힘을 보

태고 있다. 송창원(문리대53), 김권식(공대61), 신학철(공대 75) 상임고문들은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고 있다. 한홍택(공대 60) 동문은 IT 담당 고문이자 장학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홍택 박사님의 헌신 덕분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가 풍성한 읽을거리로 가득해졌습니다. ‘SNUAA Market’ ‘Daily News Summary’와 ‘AI Stock Picks of the Day’ 코너가 신설되고 최신 동문 소식은 물론 미주동창회와 각 지부 동창회의 행사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많은 동문이 활발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수(공대 76) 조직관리담당 고문과 회칙위원회 위원장 덕분에 조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박평일(농대 69) 동문은 친선 담당 고문을 맡아 미주동창회장배 골프대회와 바둑대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남가주의 김태환(의대 58) 동문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담당 고문을 맡아 서울대 의대와 미네소타 의대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용남 법률담당 고문과 오인환 전략개발 담당 고문은 자문을 구할 때 마다 서슴치 않고 응해 주신다. 미네소타지부 회장이기도 한 문성인 지부지원담당 고문은 각 지부의 현황 파악과 소통체계를 위한 network 구축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황 회장은 “처음 집행부와 고문직을 부탁드릴 때는 큰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나은 동창회를 만들려다 보니 일이 많아져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모든 분이 자신의 일처럼 헌신해 주시고 서로 호흡이 잘 맞아 일을 하며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와 고문님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효숙 회장이 SNU글로벌 네트워크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고생한 준비위원 등 동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

.....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성전 에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1971년 4월2일 열린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울려 퍼진 축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훗날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등으로 유명 시인이 된 문리대 국문학과 대학원생 정희성 시인이 헌정한 시로 서울대인의 자긍심과 시대적 책무를 일깨우며 세대를 넘어 서울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 온 상징적인 시다.

고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의 초석을 놓았던 그 기개는 머나먼 미국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져, 서울대인이라는 이름 아래 품은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감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다.

1991년 워싱턴DC에서 박윤수(문리대 48) 초대 회장을 필두로 미국 5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립총회를 열고 미주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며 교육과 자선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 역시 바로 그 면면히 흐르는 서울대 정신의 발로였다. 그로부터 35년의 세월이 흐른 2026년 1월7일,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세계 최대 IT·테크 전시회(CES 2026)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한미 양국의 창업 동문과 모교 교수진,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재학생들을 아우르는 대규모 ‘SNU Global Connect’를 성공적으로 펼쳐냈다.

학계와 연구소, 기업 그리고 정관



**서울대 미주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지속 가능한 우리 동창회

## 언제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미주동창회는 장학과 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공헌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교의 인류에 공헌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 EDUCATIONAL

-  **SNUAA Scholars Program**  
서울대 ISP와 연계한 미래 세대 리더 육성
-  **SNUAA Forum**  
동문 간 전문성을 잇는 지식 교류 플랫폼 운영
-  **Medical Student Exchange Initiative**  
서울대-미국 대학 의대 학생 교환 프로그램 지원
-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서울대-미국 대학 글로벌 인재 교환 프로그램 지원

### CHARITABLE & CULTURAL

-  **사회 공헌 사업 지원**  
지부 공익 활동 및 자선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문화 사업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추진

### MISSION INFRASTRUCTURE

-  **월간 동창회보 발행**  
소식지 발행을 통한 동문 소통 및 참여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관리**  
SNUAA USA Web 기반 디지털 소통 허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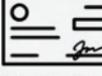
### OPPORTUNITY BUILDING

-  **Entrepreneurship Network**  
젊은 동문의 창업을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  **SNU Global Connect @ CES**  
CES와 연계해 차세대 동문 창업을 세계와 연결

### FELLOWSHIP

-  **Senior Alumni Care**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선배 동문 복지 수요 파악 및 지원
-  **Alumni Engagement**  
지역별 동문 친선 행사 지원

동창회비 및 후원금 납부 방법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하단 참조)



QR Code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계를 아우르며 미국 사회 곳곳에서 눈부신 성취를 일구고 있는 동문들은 적지 않다. 이제 그들의 역량에,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하는 동문 자녀들까지 서울대라는 이름의 네트워크로 하나가 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는 2026년 2월 호로 지령 381호를 맞이하며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매월 수천여 동문의 가정을 찾아가는 소중한 가교가 되어 왔다. 그러나 동문들의 성원과 후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서 꿈꾸었던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

축은 물론 교육 지원과 사회 공헌의 비전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대인이라는 이름 아래 미주동창회가 꿈꾸는 이 멋진 도전은 동문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 ‘뜨거운 젊은 열기’ 미주동창회의 내일을 열다

## 창업가·투자자·학생 동문들 함께 모여 실질적 협업 가능성 모색

### SNU Global Connect@CES2026 준비위원회 보고

미주동창회의 미래는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그들의 니즈를 읽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의 민첩성이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다. SGC@CES 2026은 미주동창회가 바로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무대였

다. 11월 26일 행사가 제안된 이후 12월 1일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는 약 한 달 만에 1월 7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연말연시의 분주함과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준비위원 각자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준비위원회는 SGC@CES 2026을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창업가와 투자자,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가 실



양경호(공대 전자공학과 83·왼쪽) SGC@CES 2026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임동근(농대 농경제사회학부 석사 14·오른쪽) SGC@CES 2026 준비위원회 총무&재무

을 구성했다. 특히 행사 전반에 걸쳐 참가자 프로필을 상영해 처음 만나는 동문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한 것은 동창회의 전통적 네트워크 방식을 깨뜨린 혁신적 시도로 평가된다.

행사에는 총 77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한국 거주 동문이 균형을 이루며 참여한 가운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세대 구성의 지각변동이다. 2000년 이후 학번이 전체 참석자의 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2000년대(16.3%), 2010년대(15.0%), 2020년대(10.0%) 학번이 고르게 분포하며 젊은 세대가 행사의 중

질적으로 연결되는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인사의 기조 발표, 동문 창업가·투자자·핵심 리더 19명의 2분 피치, 자유 네트워킹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체적인 프로그램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장과 SGC@CES 2026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CES에 참가한 동문 기업 부스를 방문해 젊은 창업 동문들을 격려했다. 오른쪽 사진은 위성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농사 가이드 제공업체인 새팜의 정승환 대표가 피치 세션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동문들 헌신과 연대로 일군 ‘단 한 달만의 기적’

### SNU Global Connect는 어떻게 탄생했나

“CES 기간에 서울대인 모여 네트워킹 장 열자”  
한홍택 박사 제안에 양경호·임동근 의기투합  
김종섭 총동회장-황효숙 미주동창회장도 합심

SNU Global Connect의 출발점은 한홍택 박사(공대 60·UCLA 석좌교수)의 아이디어였다. 미주동창회에서 창업가 모임인 SNUAA Entrepreneurship Network를 운영하고 있는 한 박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기간에 서울대 동문들을 한자리에 모아 네트워킹의 장을 열면 의미 있겠다는 구상을 떠올렸다. 그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지난해 11월 말, 양경호 박사(공대 83)와 상의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글로벌사업본부장도 맡고 있는 양 박사는 서울대 테크 분야 동문 사회의 ‘마당발’로 통한다. 양 동문은 “준비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지만, 장소만 확보된다면 해볼 만하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에 한 박사는 곧바로 박용필 동문(문리대 66·동창회보 편집고문)

에게 이 같은 구상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고문은 즉시 동기생인 김종섭 한국총동창회장에게 연락해 장소 제공을 ‘압박’했다. 행사 장소로 검토된 김 회장 소유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CES 기간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약이 짝 차 있어 변경이 사실상 불가

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예약한 고객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서울대 동문 행사를 위해 장소 제공을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이후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장소가 확정되자 준비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미주동창회에서는 임동근 박사(총무국장)가 합류했고,

이어 ‘네트워킹의 고수’로 불리는 양경호 박사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발휘됐다. 미시간에서 한영신 박사(생과대 86), 샌호세에서 도연희 동문(생과대 93), 김정은 동문(간호대 90)이 사무국에 힘을 보태며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양 동문과 임 총무국장은 단체 카카오톡방 ‘SNU@CES 2026 Committee’를 개설해 사실상 하루 24시간 체제로 소통을 이끌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에도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주최 측은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에는 보다 정교하고 풍성한 SNU Global Connect를 준비할 계획이다. 첫걸음은 작았지만, 동문들의 헌신과 연대 속에서 SNU Global Connect는 이미 더 큰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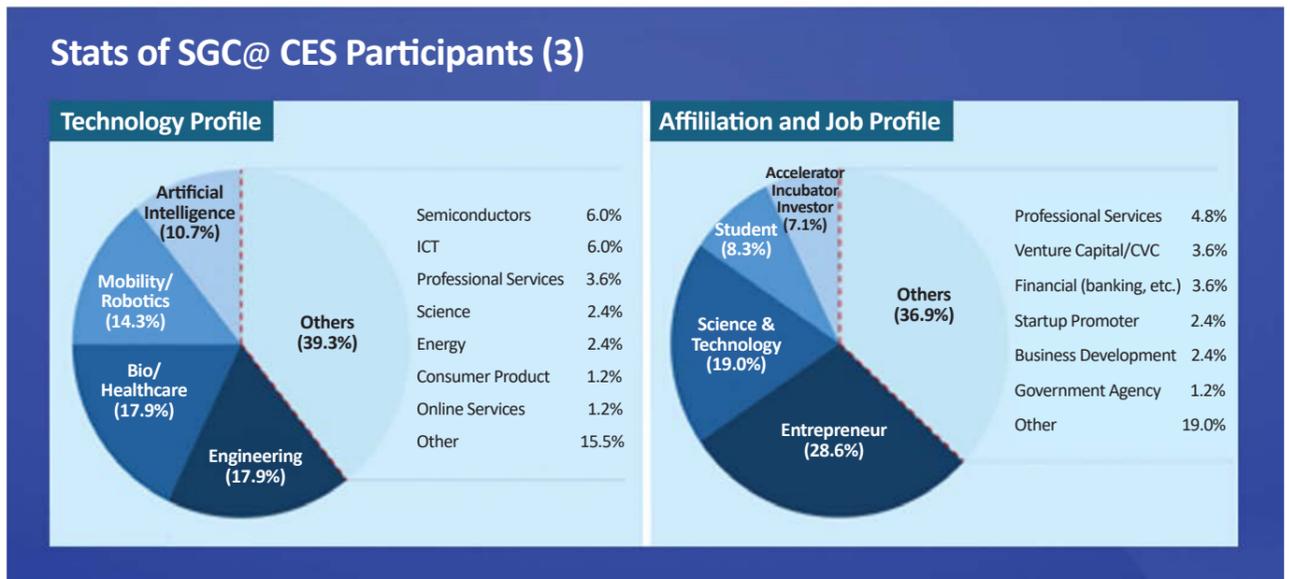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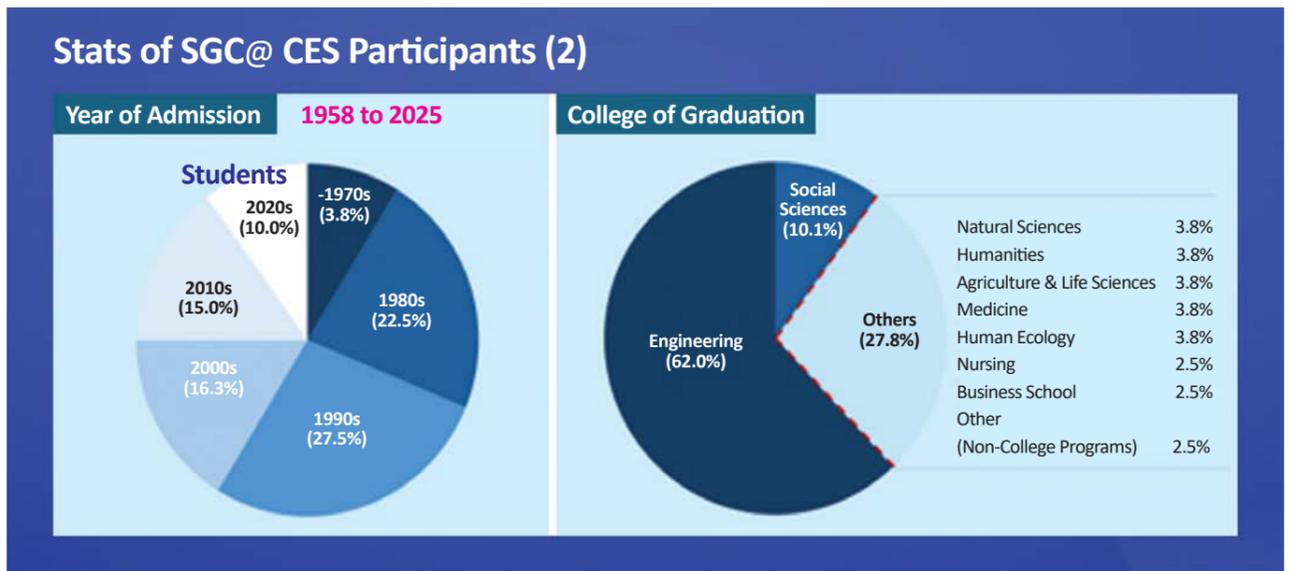
SNU Global Connect를 만들어낸 주인공들. (왼쪽부터) 한홍택, 양경호, 임동근, 박용필 동문과 황효숙 미주동창회장,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심에 썼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주동창회가 선배 세대 중심의 친목 모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젊은 창업가와 기술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AI, 로봇틱스, 바이오, 헬스케어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다루는 창업가와 과학기술 종사자, 학생 동문들이 한데 모여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탐색했다. 공과대학 졸업생이 62%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배경의 동문들이 함께하면서 학제 간 융합의 장이 열렸다. 세대를 넘어, 전공을 넘어, 지역을 넘어 연결되는 동문 네트워크의 새로운 지평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행사 후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경험 평가 8.8점, 내년 행사 추천 의향 9.1점이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

“CES 본 행사보다 더욱 값진 시간이었다”, “동문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행사의 성공을 증명했다. 동시에 네트워킹 시간 확대, 중견 기업과 투자자 참여 확대, 유사한 산업 종사자를 연결하는 좌석 배치 등 건설적인 제안들도 함께 쏟아졌다. 참가자들의 지속적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반응이었다.

준비위원회는 이 모든 피드백을 내년 행사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SGC@CES 2026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적인 첫 행사’라는 단면적 평가를 훌쩍 뛰어넘는다. 젊은 세대가 미주동창회의 새로운 에

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다. 미주동창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학문과 산업 잇는 살아있는 배움의 장 마련에 감사”



**이창하**  
(공대 응용화학부 97)  
서울대 공대 교수

## 학생부학장으로 학생 10명 인솔 CES 참여 선배들 창업 도전기, 학생들에게 값진 자극

미주동창회에서 마련해 주신 SGC@CES2026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미주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SGC@CES2026 행사는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회인 CES가 열리는 현장에서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회가 주최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CES에 참석한 재미 동문과 국내 동문, 교수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시선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가 지닌 저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문과 산업, 그리고 동문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류의 장이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각기 다른 분야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이 CES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만나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과대학 학생부학장 자격으로 공대 학생 10여 명을 인솔하여 CES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배 동문들의 진로 선택과 도전 과정, 그리고 학문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동문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 점 역시 뜻깊었습니다. 서울대 동문 선배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

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발표 시간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각 기업의 기술과 비전이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여유 있는 발표 시간이나 패널 토론, 소규모 네트워킹 세션 등이 함께 마련된다면 동문과 학생 모두에게 더욱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SGC@CES와 같은 행사의 효과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서울대 및 국내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ES 기간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동문 교수와 졸업생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만큼, 행사 정보가 충분히 공유된다면 더 다양한 동문들이 참여하여 교류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3시간 내외의 저녁 행사에 머무르기보다는, 반나절 이상을 할애해 기술 트렌드 세미나, 동문 기업 및 연구 소개, 학생 대상 멘토링, 자유로운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보

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CES라는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동문 간 교류를 넘어 학생들에게도 보다 현실적인 학습 경험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SGC@CES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대 동문 네트워크가 글로벌 현장에서 더욱 긴밀히 이어지고, 학생들에게는 학문과 산업을 잇는 살아 있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주동창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경험 많은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크는 든든한 자산”



강수진 (공대 전기공학부 16)  
WECOMMIT, Co., Ltd 대표

## AI 기반 업무 자동화 스타트업 위커밋 창업

도, 정보도, 도움을 요청할 창구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 오셨던 그 선택과 용기는 지금 생각해도 깊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선배님들 역시 각자의 시기와 환경 속에서 비슷한 도전을 겪어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기술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먼저 길을 걸어오신 선배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환경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확신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의 정보문화학을 전공한 후, 현재 AI 기반 실행 자동화 스타트업 위커밋(WECOMMIT)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짧은 피칭을 통해 제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공유했습니다. 처음 피칭 순서라 다소 긴장되었으나, 선배님들의 따뜻한 분위기와 진지한 경청 덕분에 제

생각과 비전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창업가와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행정과 문서의 복잡함입니다. 지원사업, 입찰, 행정 절차, 각종 심사 조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사람이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를 이력서 심사에 비유합니다. 조건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수많은 문서를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많은 가능성은 시작도 전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커밋은 이 문제를 “정말 쉽게 말로 문서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에디터를 열고 노트북 앞에 앉아 타이핑하는 대신, 사람이 설명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문서를 구조화하고 완성합니다. 이전에는 대표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람은 판단과 실행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동문회를 통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사업뿐 아니라 투자, 법률, 비자, 기술 등 각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오신 선배님들과의 네트워크가 얼마

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선택의 순간에 도움이 될 조언과 관점이 오갈 수 있는 연결이라는 점에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불가능을 피하지 않고, 딛고 도약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 그것이 이번 동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창업가의 태도이자, 선배님들로부터 배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실행은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업이라는 여정에는 정답이 없고, 각 세대마다 마주하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알럼나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도 대학생 혹은 초기 창업가들의 도전과 실행을 보며 작은 자극과 활력을 얻으셨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번 동문회가 그런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동문 및 선배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조언, 멘토링, 협업, 혹은 가벼운 커피 한 잔의 대화도 모두 환영합니다. 불가능을 딛고 도약하는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과의 연결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SNUAA 동문회는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서로의 선택과 시간을 존중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선배 사업가분들께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고,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통의 맥락 위에서 오간 대화는 짧았지만 깊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연결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ES 전시일정 중간에 열린 행사라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컸고,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아무런 네트워크 없이 삶을 일으켜 세우셨던 분들입니다. 제도

## “선배님들의 활동 모습, 큰 자극이 됐어요”



백민주 (공대 기계공학부 22)

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 그러나 CES에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술을 직접 접하며 이 분야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어서 참여한 SGC@CES 행사는 그 최전선에 계신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에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미국 각지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 중이신 선배님들의 모습은 큰 동기부여이자 든든한 응원이 되었습니다. 선배 동문님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셨고, 비교적 최근에 같은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께서는 유학, 진로 선택, 장학금 등 현실적인 질문에도 솔직하게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동문’이라는 연결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학부생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지만, 언젠가는 저 또한 제 길을 개척한 뒤 후배들에게 조언을 전할 수 있는 위치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 SGC@CES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학부생의 신분으로 이러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영광으로 느껴졌고,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선배 동문님들과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 22학번으로, 내년 겨울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주관 교내 대회인 ‘창의설계축전’ 수상을 계기로 CES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행사 전까지는 창업을 진지한 진로로 생각

## “작년 서울대 입학... 이런 기회가 꿈만 같아”



정동영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25)

은 얼마나 들지 등 현실적인 고민부터 앞으로 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등 장기적인 문제까지 궁금했던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미주동창회를 통해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 너무 반가웠음과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최근 유학을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학우들과 같이 연구하고 싶은 열망이 커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서 많은 지원을 받아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미주동창회와 CES를 통해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며 서울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학교생활하며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주동창회, DB김준기문화재단과 수많은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모습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GC@CES2026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공과대학에서 주최한 창의설계축전이라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공과대학과 DB김준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올해 미주동창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미주동창회에 참여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제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나눌 곳이 별로 없어서 막연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비용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I 뇌 진단’ 이진형(공대 95) 스탠퍼드 교수, 에디슨상 수상

뉴로매치로 뇌파 측정 시간 단축 · 시각화  
“뇌 질환 정복 · 뇌 모방 AI 개발이 목표”

이진형(공대 전기공학과 95) 스탠퍼드대 교수가 설립한 인공지능(AI) 뇌 진단 플랫폼이 ‘혁신의 오스카’로 불리는 에디슨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에디슨상 심사위원회는 이 교수가 설립한 스타트업 엘비스(LVIS)의 ‘뉴로매치’가 올해 에디슨상 건강·의료·생명공학 부문 ‘AI 증강진단’ 영역의 수상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에디슨상은 영역별로 셋을 뽑는 최종 후보작에 오르면 사실상 수상이 확정된다. 후보작들은 최종 심사를 거쳐 금·은·동메달을 각각 수상하게 된다.

뉴로매치는 클라우드 기반 AI 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뇌파(EEG) 검사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잡음을 제거하고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뇌파를 측정

한 이후 의사들이 수 시간씩 검토해야 했지만, 뉴로매치를 이용하면 불과 몇 분 만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등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검사 결과를 뇌와 같은 형태로 재구성해 3차원(3D)으로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기술이 핵심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FDA)에서 세 차례에 걸쳐 승인받았고, 한국 식약처 인증도 완료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뇌 관련 질환 진단을 주로 환자 대상 설문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많았고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활용해도 모양만 보일 뿐 기능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뉴로매치를 이용하면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가 뇌전증이나 치매 등 뇌 관련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추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의료진 간 협업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멀리 거주하는 환자도 원격 협업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해 뇌 전문 클리닉인 ‘뉴베라 브레인헬스 인스티

튜트’를 설립, 올해부터 뉴로매치 등을 활용한 실제 진료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목표에 대해 “모든 뇌 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이름을 따 1987년 제정된 에디슨상은 ‘혁신의 오스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시장에 실제 출시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 제품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에디슨상 시상식은 오는 4월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린다.

## 박한식(문리대 63) 교수 별세

카터-김일성 만남 주선  
한반도 평화 연구 헌신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문리대 63) 조지아대(UGA) 명예교수가 지난 1월 20일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칸대에서 석사,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아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반도 평화 연구와 남북 관계 개선에 평생을 바쳤다.

1981년 재미 학자들과 처음 평양 땅을 밟은 이래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1995년 조지아대에 국제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초대 소장을 맡았다.

고인은 특히 1990년대부터 북미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평양을 찾아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문을 주선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지게 했다.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해 당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 기자들의 석방에 일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고인은 2010년 예비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받았다. 2015년 조지아대 교수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강연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 이대희(공대 04) 동문의 Goldenear Club

# ‘사운드 백신’으로 청각 건강 지키는 헬스케어

청각 민감도 측정해 보호 · 개선하는 플랫폼

지난 1월,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정기 모임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CES 2026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SNU Global Connect 행사에 대한 보고와 함께, 청각 건강을 지키는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모임은 기업넷 회원들 대부분이 조직위원회로 참여했던 SNU Global Connect @ CES 2026 행사 결과 공유로 시작됐다.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 행사는 100여 명의 동문, 스타트업, 산업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90초 피치 세션, 네트워킹 디너, SNU 에코시스템 인사이트 공유 등을 통해 글로벌 서울대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며, 창업네트워크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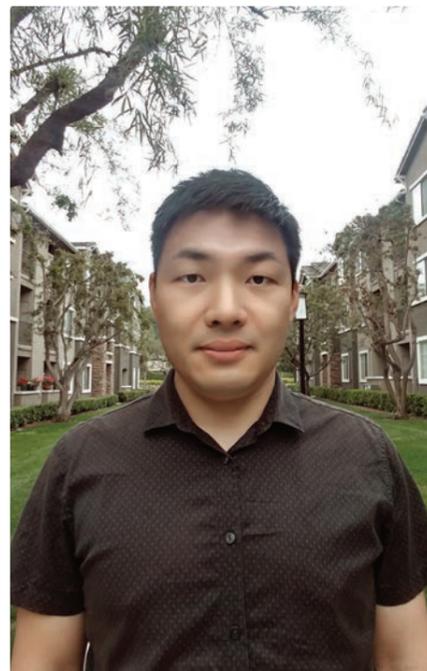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대희 동문(공대 04)이 운영하는 Goldenear Club이 소개됐다. Goldenear Club(<https://goldenearclub.com>)은 음악 전문가, 오디오 엔지니어, 오디오파일을 위한 특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Sound Vaccine™으로, 청각 민감도를 보호하고 유지하

며 잠재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다.

Sound Vaccine은 ‘Threshold Sound Conditioning™(TSC)’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적인 보청기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과 달리, TSC는 비침습적 음향 자극 기술이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기술은 사용자의 주파수별 ‘청각 역치’를 파악하고, 청각 유모세포를 자극하는 타겟 저수준 음향 신호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청력 손실 지연(Retardation), 소음 환경으로부터의 보호(Prevention), 손상된 주파수 범위의 민감도 개선(Restoration)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플랫폼은 멤버십 기반으로 운영되며, 사용자들은 헤드폰을 사용해 31개 주파수 대역에 걸쳐 청각 민감도를 측정하는 자가 청력 검사를 수행한다. 교정 후에는 하루 두 번, 30분씩 Sound Vaccine 세션을 듣는다. 흥미롭게도 이 세션은 청각 역치 수준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마이페이지’ 대시보드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청각 민감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청각이 생명인 음악 프로듀서, 엔지니어, 뮤지션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참석자들은 기술의 과학적 근거, 사용 경험, 그리고 음악 산업 종사자들에



게 미칠 영향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청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예방적 접근을 통한 청력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목받았다.

창업네트워크는 이처럼 글로벌 네트워킹과 혁신 기술을 결합하며 동문 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 정기 모임은 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 캠퍼스 커플로 실리콘밸리까지...벤처의 파도를 손잡고 넘다

## 윤정아 동문이 만난 김범섭 최승희 동문 부부

당의 초등부와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어 결혼을 한 후 UC 버클리로 함께 유학을 와 각자의 분야에서 나란히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범섭 동문은 2001년 벤처기업 버카나 와이어리스를 창업해 2005년 퀄컴에 매각한 뒤 현재 퀄컴 임원(VP)으로 재직중이며 최승희 동문은 벤처 캐피탈에서 펀드조성 업무를 10여 년 넘게 하다가 은퇴했다. 부부는 동창회 활동에도 헌신적이어서 김범섭 동문은 북가주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고 최승희 동문은 하이킹 동호회 진판텔을 이끌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과 캐피탈 현장에서 성공 스토리를 써온 두 동문을 만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들어봤다.

벤처 창업의 거친 파도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높은 위치에 오른 김범섭 동문에게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화려한 이력보다 60대 리더 특유의 단단하고도 유연한 완숙미였다. 그리고 김범섭 동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성공의 궤도를 함께 그려 온 최승희 동문에게서는 위대한 조력자의 모습이 엿보였다.

###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물리학자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학생 과학] 부록편에 실린 전자회로 만들기 부분을 보고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온갖 전자부품을 파는 수많은 작은 상점이 모여있는 신세계를 접하면서 실제 동작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재미를 느껴 전자공학을 공부하게 됐죠.”

### 대학교수 대신 벤처 창업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기 전에 칩스 앤드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약 5년 만에 엄청나게 커진 회사예요. 그 곳 동료들과 창업 스타디 그룹을 하다가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스타디 그룹 친구들이 활발히 창업 / 투자유치 / 상장 / 매각을 하면서 제게 여러 차례 연락했어요. 1999년 연구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온 후 저도 한 때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통해 당시 제 현실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외국에서 일해보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 회사를 매각할 당시 아쉬움도 컸을텐데 그 과정을 통해 배운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흔들림없는 믿음과 지원을 해 주는 벤처 캐피탈이 있다면 벤처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칩 설계는 자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라운드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은 펀드도 커야 하고 수



2023년 동문회 모임에 참석한 김범섭, 최승희 동문 부부.

## 카이스트 교수에서 벤처 창업, 퀄컴 임원으로 “마지막 남은 하고 싶은 일은 벤처 캐피탈”

—김범섭 동문(공대 79)

## ETRI 연구원에서 벤처 캐피탈 펀드 전문가로 “노력은 언젠가 보상...실력을 쌓는게 최선”

—최승희 동문(사회대 81)

차례에 걸친 라운드를 진행시키기 위해 벤처캐피탈 세계에서 네트워크도 탄탄해야하며 여러 번의 흥망성쇠를 경험해 봐서 조바심 내지 않고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요.”

### 교수에서 창업가,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의 VP로 변신했는데 ‘작은 조직의 유연함’과 ‘큰 조직의 영향력’ 사이에서 리더십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교수를 하면서는 앞서가는 연구와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췄었고, 창업했을 때는 회사를 키우는 것과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대기업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은퇴 이후 혹은 인생 후반기, 새롭게 꿈꾸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으신가요?

“제가 해 보고 싶었던 네 가지 일 중에 세 가지(교수, 창업가, 대기업 임원)는 이미 다 해 봤고 하나 남은 것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원을 하다 벤처 캐피탈 펀드 조성 전문가로 변신한 최승희 동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역사를 좋아해서 사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왕조가 바뀌는 뒷배경에는 늘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있었어요. 옛날 경제 시스템은 토지 제도였으니까, 토지 제도가 좀 문란해진다거나 조세가 잘 안 거둬진다거나 하면 왕조가 바뀌더라 말이죠. 그래서 사학과보다 경제학과를 가서 경제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벤처 캐피탈 현장에서 증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남편이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대전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대덕 연구단지에서 ETRI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다시 미국에 왔을 때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실리콘밸리에 오니 벤처기업의 생성과 소멸이 너무 자연스럽게 유연해서 에코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가는 걸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 신속한 변화와 유연함에 마음이 끌리는 동시에 저의 경제학적 백그라운드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벤처 캐피탈 분야에 몸담게 됐습니다.”

### 여성 경제인으로서 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은 실력을 쌓아야 해요. 남자들은 5만점만 알아도 인정받는다면 여자들은 7이나 8 정도를 알아야 같은 레벨로 인정받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분야에서 살아 남으려면 실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지만 노력은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게 최선이지요.”

###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도약하기 위해 ‘자본의 역할’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어떤 비전이나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그 비전을 시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과 네트워크의 제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바람직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즈니스 개발에 적절한 리소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창업자의 마음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전 실현방안과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 은퇴 후 선배님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가장 가치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를 해요. 얼마 전까지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남은 음식을 허리스 웰터에 가져다 주는 운전 자원봉사를 했어요. 웰터에 오시는 분들께는 일주일에 한 번 배달오는 이 음식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며 고맙다고 말하실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생 시계의 정오를 갓 지난 6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범섭, 최승희 동문의 이야기 속에서 부부가 앞으로 함께 써 내려갈 통찰력 있는 미래가 그려졌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든든한 또 다른 의미의 창업자이자 조력자로 거듭날 두 동문의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글·사진=윤정아(소비자학과 95·편집위원)



(왼쪽부터) 지난해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북유럽을 여행한 김범섭, 최승희 동문 부부. 두 동문은 북가주 하이킹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 자산 증식은 QQQ·SPY로, 생활비는 고배당주로

SNU 1월 포럼

은퇴 후의 성공적인 투자 방법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지난 1월 10일 개최한 2026년 첫 SNU 포럼은 ‘은퇴 후의 성공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강연으로 평소보다 많은 동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노트르데임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병주(상대 74) 박사는 2026년의 거시 경제 전망에 바탕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과 새로운 투자 대안들을 심층 분석해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공했다.

이 박사는 “100세 시대인 요즘은 은퇴 후의 삶이 예상보다 길다”며 “은퇴 투자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보존(Preservation)하는 균형 감각으로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이병주 박사는 시카고 지부 동문으로 30여년 경제학 교수를 지내고 은퇴했으며 지난해 1월 시카고 지부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에서 같은 주제로 발표해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병주** (상대 58)  
노트르데임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

##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초

이 박사는 강연의 문을 열어 투자의 성패는 개별 종목의 ‘운’이 아닌 통계적 ‘실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 핵심 이론이 바로 ‘평균-분산 효율적 포트폴리오(Mean-Variance Efficient Portfolio)’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수익을 최대화하거나, 목표 수익을 위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다. 이 박사는 애플(AAPL), 맥도날드(MCD), 홈디포(HD), 존슨앤존슨(JNJ), 월마트(WMT) 등 우량주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5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며 “은퇴자는 젊은 층보다 위험 감내 수준이 낮으므로,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Portfolio Frontier) 위에서 변동성이 낮은 구간을 선택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6년 거시경제 전망 ‘트럼프 관세’ 쇼크의 교훈

현재 금융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화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변동성이다. 이 박사는 특히 2025년 4월 발생했던 ‘트럼프 관세 소동(Trump Tariff Fiasco)’을 분석하며 거시경제적 통찰을 제시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보복 관세를 선언했다. 시장의 반응은 처참했다. 단 4~5일 만에 주요 지수가 20%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조언으로 정책이 유예되자, 시장은 다시 10% 급등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박사는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무역 적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World Reserve Currency) 지위를 유지하고 연준이 건전한 정책을 편다면 무역 적자는 그 자체로 위기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과도한 관세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해 은퇴자들의 자산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인덱스 ETF 장기 보유하면 결국은 돈 벌어 최고의 타이밍보다 시장에 머무는게 중요 ‘제2의 월급’으로 최근 커버드콜 ETF 부상

### 은퇴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이 박사는 성공적인 은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자산 보존(Preservation) 사이의 균형이라며 투자자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성장 투자 전략

성장 투자(Growth Investment)는 젊은 층이나 은퇴 초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할 때 적합하다.

- 대상: NVDA(엔비디아), TSLA(테슬라) 등 혁신 기술주, 또는 QQQ(나스닥 100), SPY(S&P

500), VTI(미국 전체 시장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

- 특징: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시장 급락 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 배당 및 수익 투자 전략

-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필수적이다.
- 대상: JNJ, PG, MCD 등 전통적인 고배당주와 SCHD(찰스슈왈프 배당성장 ETF), VIG 등 배당 성장 ETF.
- 장점: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Beta)값이 낮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매분기 들어오는 배당금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새로운 대안: 커버드콜 ETF

최근 주목받는 상품으로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해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다.

- 주요 상품: JEPI, JEPQ(JP모건), XYLD, QYLD(글로벌 X).
- 특징: 매월 배당(Monthly Dividend)을 지급하여 은퇴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하락장에서 옵션 프리미엄이 완충 작용을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Capped)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역할

이 박사는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자 ‘가치 저장 수단(Store of Value)’으로 정의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일반 증권 계좌에서도 쉽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금(Gold)과 같은 성격의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분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높은 변동성은 은퇴자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강연 말미 지난 10년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매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가상의 투자자 Bob’의 사례를 들며 그는 최악의 타이밍에 샀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10년간 총 1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Timing the Market) 애쓰기보다, 시장에 계속 머무는(Time in the Market)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은퇴자처럼 투자 기간이 짧아 질수록 개별 종목 보다 인덱스(지수) ETF가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 Growth Investment Strategy

- Your objective is to pursue highest possible return of your investment
  - Focus on the growth company: Newer and technology focused companies
  - In early years of AAPL, MSFT
  - Recently, TSLA, NVDA
  - ETFs like QQQ, NASDAQ 100 largest companies
  - More moderately, SPY (VOO, IVV) S&P500 largest companies in the US

### Dividend/Income Investment Strategy

Traditional Dividend/Income investment strategy:

- H High Dividend Stocks (Stable & Value companies): JNJ, TGT, WMT, PEP, P
  - D MCD, JPM, MO, XOM, etc
  - D Dividend focused ETFs: SCHD, VYM, VIG, DGRO, etc
- Dividends are typically paid quarterly

### Covered Call Options ETFs: Income Projections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vered Call ETFs.

Company	Funds	Yield	ER	Net Assets	Inception
Global X	XYLD	12%	0.60%	\$3B	2013-06-21
	QYLD	12%	0.61%	\$9B	2013-12-11
	RYLD	12%	0.60%	\$1.5B	2019-04-18
JPMorgan Chase	JEPI	7-8%	0.35%	\$40B	2020-05-20
	JEPQ	12%	0.35%	\$20B	2022-05-03
YieldMax	NYDY	75%	1.01%	\$1.5B	2023-05-10
	TSLY	80%	1.01%	\$1B	2022-11-22
	YMAX	65%	0.99%	\$500M	2024-01-16
Neos	SPYI	12%	0.68%	\$2.5B	2022-08-29
	QQQI	12%	0.68%	\$650M	2024-01-29

Yield: Annualized monthly payment rate  
ER: Expense ratio paid to the company

### Bitcoin ETF and Bitcoin Covered Call ETF

Company	ETF	ER	Yield	Net Asset	Inception
iShares	IBIT	0.12%	-	\$50B	2024-01-05
Fidelity	FBTC	0.25%	-	\$20B	2024-01-10
Gray Scale	GBTC	1.25%	-	\$21B	2013-09-25
Invesco	BTCO	0.25%	-	\$900M	2024-01-11
ProShares	BITO	0.95%	50%	\$3B	2021-10-18
YieldMax	CONY	1.01%	130%	\$1.2B	2023-08-14

# 동창회보 열혈 애독자...”빛나는 후배들 자랑스러워”

## 북가주 강재호(상대 57) 동문, 골드이사 합류



강재호 동문이 부인,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실버이사였던 북가주 강재호(상대 57)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재정 자립을 위한 센추리 펀드에 5,000달러를 더 후원해 골드이사가 됐다.

강재호 골드이사는 “동창회보를 통해 후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라도 모교와 동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며 “특히나 미주동창회가 젊은 동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강재호 동문은 미주동창회보 20여년 애독자다. 강 동문은 “일상의 즐거움 중의 하나가 매달 동창회보를 받아 보는 것” 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다 읽은 후에는 6~7개월치를 모아놨다가 서울에 있는 동기 친구에게 보낸다” 고 말했다. 강 동문은 “동창회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데 친구들도 은퇴하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 다들 재미있게 읽었다고 전해온다” 고 덧붙였다.

강 동문은 대학 졸업 후 화학회사를 다니다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 10여 명 가까운 동기들이 이미 터를 잡은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 약사인 아내와 함께 수십 년 약국을 운영하다 2002년에 은퇴했다.

“은퇴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한 후 후유증이 있어서 활동(Activity)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미네소타에서 열린 평의원회의 초청장을 받았는데 몸이 불편해 못 갔습니다. 올해는 참가해 미주 각지에서 온 동문과 후배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 동문은 인터뷰 내내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여든여덟인데 매일 숨 쉬며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평생 곁에서 고생해 준 아내에게 고맙고, 두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 CPA와 부동산 비즈니스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사는 것도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움의 터전을 닦았던 서울대학교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이효상·배수옥 동문 부부, 모교에 ‘김철수 물리관’ 건립

(물리학과 62) (농화학과 70)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400만불 쾌척, 작년 완공식



이효상(오른쪽) 배수옥 동문 부부가 완공된 '김철수 물리관'을 둘러보고 있다.

미주 동문이 서울대에 4백만 달러를 기부해 물리학과 김철수 교수를 기념하는 물리관이 건립됐다.

남가주와 메릴랜드를 오가며 거주하는 이효상(물리학과 62), 부인 배수옥(농화학과 70)

부부 동문은 은사인 물리천문학부 고 김철수 교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김철수 물리관 설립기금’ 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4백만 달러를 기부하며 기념관 완공을 이루었다. 기념관은 중앙도서관 관정관과 56동 자연과학관 사이에 지어진 56-1동이다.

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실험실, 아이디어 팩토리,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센터, 3D 프린터룸 등의 시설을 갖추며 미래 물리학을 선도할

공간을 갖추었다. 유홍림 총장은 기념관 완공식 축사에서 “서울대 최초로 교수님의 성함을

건물이름으로 갖게 되었고 스승과 제자간의 깊은 인연과 감사의 마음이 깃든 소중한 공간, 그리고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지혜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의 실현 공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동문은 “학생시절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물질적 은혜를 통해 오늘의 나 자신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교수님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 설립을 추진했다” 고 말했다. 이효상 동문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김철수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수업을 받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리하이 유니버시티(Lehigh university)에서 유체역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 가르침이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효상 동문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헬리콥터 장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 동문 시조



윤성희 (사대 58 · 북가주)

# 감나무 겨울 타령



주황색 단감 세 개  
가지 끝에 울망졸망

잘 익은 감 꺾어다가  
형 먼저 아우 먼저

생감 땀감 단감 셋  
영감도 끼어드니 넷

삼남매 오손도손  
사이 좋게 자랐네

농을까 제사상에  
먹을까 사근사근

뒷동네 처녀 얼굴  
홍시처럼 불그스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세상 감타령

주인님 따려다 말고  
망설이네 귀여워서

아서라 효도하리  
부모님께 먼저 드려

얼씨구 흥시 영감  
절씨구 영감 흥시

작년에 왔던 갓설이  
금년에도 또 왔으면

# “나는야 조지아 홍보대사” ... 조지아 소개 책 3권 출간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 이종호 동문(동양사 81)**

관악캠퍼스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역사와 인간을 탐독하던 한 청년이, 40년의 세월을 지나 태평양 너머 미국 남부의 붉은 흙 위를 걷는 ‘기록가’가 되었다. 2021년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로 부임한 이래 6년째 조지아주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알리고 있는, 자칭 타칭 ‘조지아 홍보대사’ 이종호 동문(동양사 81) 이야기다.

관악캠퍼스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역사와 인간을 탐독하던 한 청년이, 40년의 세월을 지나 태평양 너머 미국 남부의 붉은 흙 위를 걷는 ‘기록가’가 되었다. 2021년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로 부임한 이래 6년째 조지아주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알리고 있는, 자칭 타칭 ‘조지아 홍보대사’ 이종호 동문(동양사 81) 이야기다.

2001년 도미한 이후 LA중앙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 등 언론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미주 한인 사회의 굵직한 변곡점들을 기록해 온 그는, 애틀랜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도시의 화려함이 아닌 조지아의 울창한 숲과 그 안에 흐르는 느긋한 공기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회상한다.



이종호 동문은 자칭 타칭 ‘조지아 홍보대사’다. 이 동문이 발로 뛰며 쓴 조지아의 역사와 자연, 명소들을 기록한 책들.



뉴욕중앙일보 6년, LA중앙일보 15년, 미국 동서부를 두루 거친 그의 이력은 ‘남부 제국’ 조지아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타 지역과의 객관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조지아가 지닌 잠재력과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그의 글은, 이주를 고민하는 많은 한인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 신뢰의 지표가 되고 있다.

“뉴욕이 치열한 경쟁의 장이고, LA가 거대한 에너지의 집합체라면, 조지아는 사람을 품어주는 깊은 숲표 같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 동문이 평생의 화두로 삼아온 ‘역사와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애정’과 맞닿아 있다.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 『시민권 미국 역사』 등 굵직한 역사서를 펴낸 바 있는 그는, 눈앞의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역의 본질에 주목했다. 책상에 앉아 보고받는 대표에 머물지 않고, 직접 카메라와 펜을 들고 조지아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 이유다.

## 뉴욕 6년, LA 15년 거쳐 애틀랜타 정착 6년 조지아주 자연 · 역사 · 도시 등 발로 뛰며 기록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조지아 알리미’ 앞장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조지아의 풍경은 서사가 되고, 그 서사는 다시 미주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 그 발걸음의 결실이 바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2023년)이다. 한인들에게 다소 생소했던 조지아의 명소들을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한, 사실상 최초의 한국어 현지 가이드북이라 할 만하다.

이 동문이 직접 담아낸 사진과 문장 곳곳에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넘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중이 묻어난다. 이어 『조지아 애틀랜타 백과』(2024년)를 통해 조지아주의 역사와 현재,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궂적을 집대성했고, 그가 애틀랜타 부임 후 처음 기록하고 정리한 『조지아, 그곳에 살고

싶다』(2021년)는 최근 애틀랜타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요 도시·지역 소개하는 『조지아, 그곳이 알고 싶다』 영상으로 재탄생하며 조지아를 찾는 이들의 필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6년째 애틀랜타 최대 한인 신문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지역 사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야말로 지역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믿는다.

오늘도 이름 모를 숲길을 걸으며 사람과 자연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을 이종호 동문에게, 동문 선후배들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 뉴욕 골든클럽 공식 홈페이지 개설

지난 5년간의 행사 사진·뉴스레터 PDF 한 눈에 회원 112명의 ‘디지털 사랑방’... 많은 참여 당부

뉴욕 동창회 산하 골든클럽이 홈페이지([http:// SnuGoldenClub.org](http://SnuGoldenClub.org))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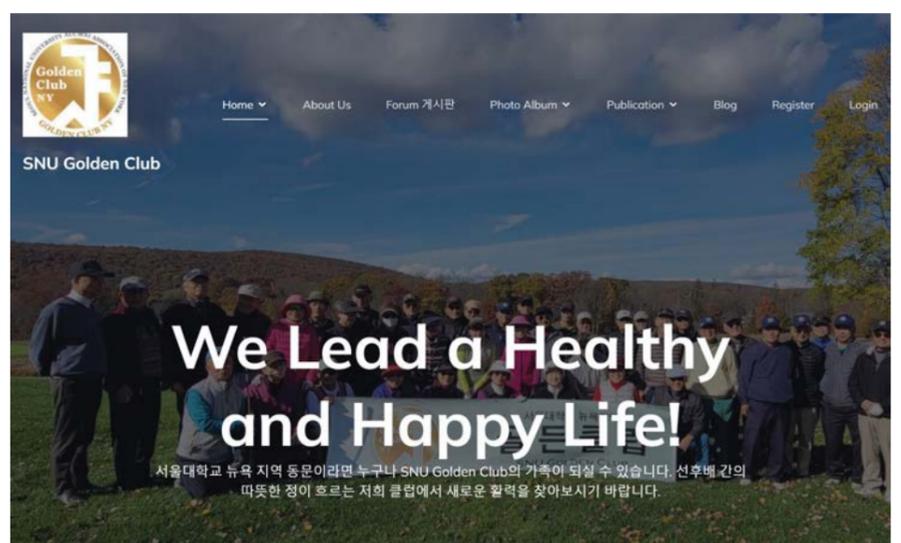
김정필(공대 71) 골든클럽 회장은 “그동안 다음(Daum) 카페 이용의 번거로움과 카카오톡 사진 만료 등으로 인해 회원들이 과거 자료를 찾아보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골든클럽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공식 홈페이지 오픈 소식을 전했다.

뉴욕 골든클럽은 1998년 8월 발기 회원 15명으로 창립한 이후 골프대회, 피크닉, 하이킹, 단체 여행 등을 통해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해 동문 소식을 공유하면서 지금은 112명의 회원 명단을 자랑하는 동문 단체로 성장했다. 2025년 연회비를 납부한 동문 만도 88명에 달한다.

처음에는 회원 자격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한 시니어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 뉴욕 지역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뉴욕 골든클럽 홈페이지 개설을 주도한 김정필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발행된 모든 뉴스레터를 PDF 형식으로 보관해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게 했고 카



뉴욕 골든클럽 홈페이지 메인 화면.

톡방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던 지난 5년간의 소중한 행사 사진들을 모두 정리해 연도별로 볼 수 있게 했다”며 “회원가입을 하면 직접 글을 올리거나 동문들의 글에 댓글을 달며 따뜻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골든클럽은 동문 간의 따

뜻한 친목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며, 뉴욕지역 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동창회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며 “아직 보완중이기는 홈페이지가 동문들의 디지털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방문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aa.org](mailto:contact@snuaa.org)

# 21세기 학번 동문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로 새해 힘찬 출발

## 뉴잉글랜드 지부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원덕수)는 2026년 신년을 맞아 1월 10일(토) 보스턴한인교회 강당에서 신년 인사 모임과 소음악회를 열고 동문 간 화합과 새해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가 열린 보스턴한인교회는 동문인 이영길 담임목사(의대 71)가 오랜 기간 시무해 오고 있는 교회로, 동창회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했다.

행사에 앞서 지난해와 올해 소천한 동문들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이 마련됐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Vocalise)’가 연주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먼저 떠난 동문들의 삶과 발자취를 기리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1세기 학번 동문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다. 연주자들은 요제프 하이든(J. Haydn)의 피아노 트리오 제3악장을 연주하며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고,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행사 주제 곡인 우디 거스리(Woody Guthrie)의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처럼 시니어 동문들의 ‘이 땅에서의 이민 생활의 시작과 정착’이라는 공통의 경험과 주니어 동문들의 유학 및 이곳에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차례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들이 지난 1월10일 보스턴한인교회 강당에서 신년 모임을 열고 한자리에 모였다.

과 새해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시니어 그룹과 200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이 각각 절반가량 참석해, 지난해 야유회에 이어 세대 구분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동창회 측은 “세대와 전공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동문 공동체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과 문화 행사를 통해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 사회의 결속과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3악장을 연주한 2000년대 학번 동문들.

# 모두가 맛있는 음식에 선물 갖고 모인 크리스마스 파티

## 하트랜드 지부

하트랜드 동창회(회장 이주현)는 매년 12월 각자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전통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어오고 있다. 2025년 12월 6일 오후 6시 김없이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들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 파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1. 빨간 옷을 입고 오기 2. \$25 상당의 선물 포장해 오기 3. 맛있는 음식 하나씩 가져오기

하지만... 몇몇 동문들께서 빨간 옷을 잊고 오신 덕분에(!) 단체 사진은 오히려 더 다채로운 색감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음식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넘쳐, 파티를 마쳤을 때는 모두가 산타클로스 배가 되어버렸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모임에는 1959학번 선배님부터 2006학번 후배들, 그리고 젊은 동문들의 자녀들까지 함께했다. 그래서 White Elephant 선물 교환 게임, 공든 탑 무너뜨리기, 음료수 밀어서 상품 받아가기 등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며 웃음이 끊이지



하트랜드 지부는 매년 12월이면 각자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모이는 크리스마스 파티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빨간 옷을 입고 모인 하트랜드 동문들.

## 59학번부터 06학번까지 그리고 2세들도 동행 게임하며 웃음 끊이지 않은 가족같은 즐거운 밤

않는 활기찬 밤을 보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에 땅이 꺼질 것 같았다는 분들

을 위해, 새해 2월 15일에는 ‘신년맞이 만두 빚기 & 사행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사행시 대회를 준비하는 호민선 선배님은 지난 1년간 매주 하나의 주제로 한 챗터씩 써 내려가 총 52챗터의 책을 발간하신 분으로 이미 사행시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을 해와다 함께 둘러앉아 만두를 빚고 이야기 꽃을 피우며 따뜻하게 새해를 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이주현(미대 92) 지부 회장

# 베토벤과 드뷔시가 함께한 낭만으로 물든 신년하례식

## 문리대 동창회

남가주에는 문리과대학(문리대) 동창회가 있다. 1975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캠퍼스를 관악 캠퍼스로 종합화 하면서 동승동에 있던 문리대는 해체되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3개의 기초학문대학으로 개편됐지만 문리대를 졸업한 동문들은 문리대 이름으로 모여 지금껏 정기총회와 신년하례식, 피크닉, 크고 작은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

문리대 동창회가 명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면 반갑고, 모이면 즐겁고, 시대가 변해도 퇴색되지 않는 문리대만의 지성과 낭만이 '우리는 영원한 문리대인'이라는 자부심과 깊은 유대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문리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인문대, 자연대 후배들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선배들의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르며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문리대 동창회장은 인문대 85학번 김종하 동문이 맡고 있다.



지난 1월24일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린 문리대 동창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동문들.

지난 1월24일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문리대 동창회의 2026년 정기총회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신년하례식은 보통 맛있는 식사를 하며 새해 인사를 나눈 뒤 특강과 해설을 곁들인 작은 음악회, 참석 동문들이 모두 돌아가며 한마디씩 입담을 과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는 아쉽게도 '생성형

AI를 이용해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기로 했던 철학과 90학번의 송명국 동문이 독감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새로운 지식을 향한 선배들의 뜨거운 학구열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아름다운 선율이 대신 채워주었다. 동문들은 초청 피아

니스트 안정희씨가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연주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드뷔시의 '달빛', 쇼팽의 연습곡 '선샤인'에 흠뻑 취해 모처럼 찾아온 기분 좋은 낭만에 젖어들었다.

새해 첫 모임을 빛낸 이 낭만이 올 한 해 동문들의 삶에 따뜻한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신년총회 개최

### 북클럽·산행·골프 등 친목 강화 사업 추진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가 지난 1월 10일 세리토스의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신년총회를 열고 새해 중점 사업과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장동욱 회장(72학번)의 신년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참석한 각 기수 대표와 동문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채규환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양수진 차기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새해 덕담을 건네며 모임의 의미

를 더했다.

동창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북클럽 독서모임 ▲산행 모임 ▲골프 동호회 등 동문 간 교류와 친목을 강화하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정열 박사(70학번)가 '뇌 기능 향상(Brain Boost)'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CPA 김경무 동문(공대 69학번)이 리빙 트러스트와 세법 전반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오는 2월 14일 제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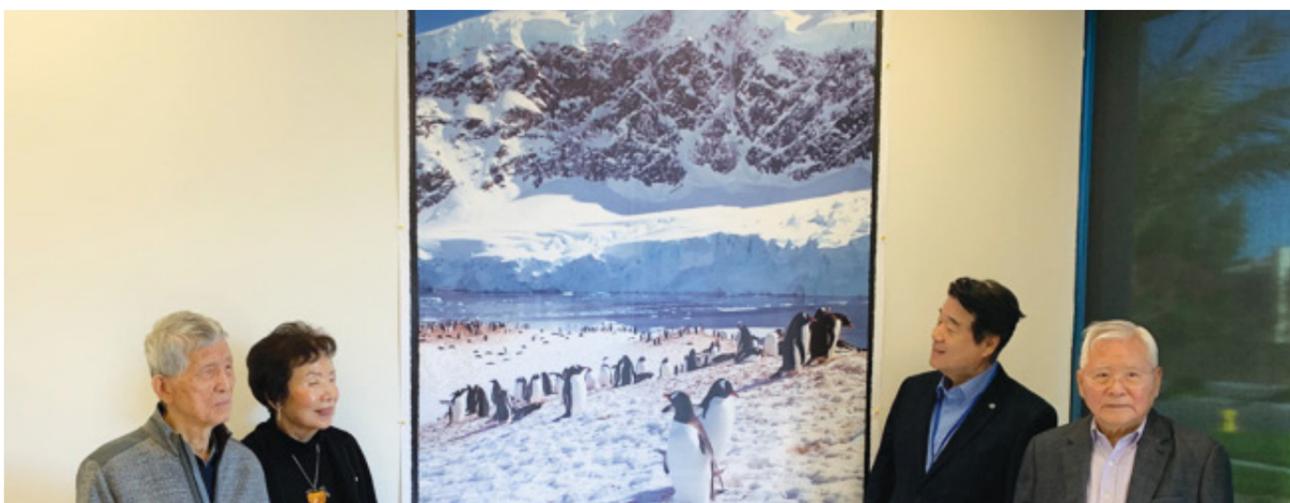
오정열 동문이 뇌기능 향상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는 양수진 동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성공적인 회장직 수행을 기원했다.

2부 순서는 백정현 동문(음대 66학번)이 사회를 맡아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의 시간을 이어갔다.

취재=장동욱(간호대 73) 회장

## 방효신 동문, 남가주 총동창회에 남극 펭귄 사진 작품 기증



왼쪽부터 신건호(법대 53)·방효신 부부, 김종섭 한국 서울대 총동창회장, 최진석 동문(법대 64).

### 동창회관 로비에 전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방효신 동문(약대 56)이 지난 1월 14일 남가주 총동창회에 남극의 펭귄을 담은 사진 작품 1점을 기증했다.

방 동문은 두 차례 남극을 방문하며 장엄한 자연의 절경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지난해 12월 11일 개막한 사진전 '대지의 풍요(Riches of the Land)'에 출품됐던 작품으로, 전시 종료 후 동창회에 기증됐다. 해당 작품은 현재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다.



(왼쪽부터) LA 체임버 콰이어(LACC)는 '할렐루야' 합창 공연으로 신년 나눔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800석 객석을 모두 채운 관객들은 '할렐루야' 공연 전통에 따라 모두 기립해 박수로 화답했다. 유명 지휘자 금난새 동문이 코리아-LA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공연을 마친 후 관객들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 남가주 동창회 '자폐 어린이 돕기 신년 나눔 음악회' 800석 전석 매진 기록하며 성황리 마무리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채규황)가 주최한 '자폐 어린이 돕기 신년 나눔 음악회'가 지난 1월 4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극장에서 8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 당일 오전까지 쏟아지던 비로 행사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오후 들어 날씨가 말끔히 개며 관객과 주최 측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고, 공연장 안에는 새해를 맞아 나눔을 실천하려는 따뜻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음악회는 마에스트로 금난새 동문이 코리아-LA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모차르트의 '소야곡(Eine Kleine Nachtmusik)'으로 문을 연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의 피아졸라 '부

금난새 동문 지휘 · UC 어바인 특별후원  
공연 수익금, 한미특수교육센터에 전달

에노스아이레스의 4계절 - 겨울', 기타리스트 지익환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드보르작 현악 4중주 '아메리카' 2악장 등으로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의 미주 데뷔 무대는 탱고 특유의 열정과 서정으로 앙콜을 이끌어냈고, 피아니스트 찰리 울브라이트는 즉흥 연주와 폭발적인 테크닉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대미는 로스앤젤레스 체임버 합창단(LACC)이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

야'를 악보 없이 합창하며 장식했다. 관객 전원이 기립해 박수로 화답했고, 앙콜로 이어진 '에델바이스'는 자연스러운 싱얼롱으로 감동을 더했다.

이번 공연을 총괄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스티브 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월콜(Will Call) 데스크에서 봉사한 김경무(공대 69) 전 동창회장을 비롯해 이영현(간호대 70), 나용화(생과대 79) 동문, 공연 후 리셉션을 준비한

안혜정(생과대 77) 동문 등 다수의 동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행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티켓은 20달러 도네이션으로 판매됐으며, 관객 전원에게는 정관장이 후원한 40달러 상당의 고급 홍삼 제품이 증정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 수익금은 2월 14일 열리는 총동창회 신년 총회에서 자폐 및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한미특수교육센터(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에 기부된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신년 음악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월콜(Will Call) 데스크에서 관객 안내를 맡은 동창회 임원진. 왼쪽부터 나용화 동문(생과대 79), 이영현 동문(간호대 70), 김경무 동문(공대 69-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연 후 열린 리셉션에서 함께 한 김종섭(왼쪽) 한국 서울대 총동창회장, 티파니 로페즈 UCI 예술대 학장, 금난새 지휘자. 이번 공연을 총괄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스티브 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공연을 마친 뒤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연주자들과 동창회 임원진.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은 탱고 연주로 무대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여러 차례 앙콜을 받았다.

# 왕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이 빚어낸 찬란한 인류 유산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과 그의 황후 몸타즈 마할의 영묘이다. 몸타즈 마할이 죽은 1631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22년의 공사 끝에 1653년 완공됐으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인도 건축미의 우수함을 보여준다.

## 김영석(음대 74) 동문의 인도 타지마할 여행기

2025년 11월, 인도 여행에 가장 적합한 계절(그래도 더웠지만), 저와 제 아내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델리(Delhi), 자이푸르(Jaipur), 아그라(Agra)와 인도인들의 영혼의 안식처인 바라나시(Varanasi),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보드가야(Bodh Gaya)를 잇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인도에서 약 2주 동안 다녔던 많은 유적 중에서도 돌아와서 제 마음을 애잔하게 두드린 곳은 타지마할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서서히 자태를 드러낸 타지마할을 마주한 처음 몇 분간의 그 놀라운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박한 역사 지식을 갖춘 가이드의 설명과 여행 전 미리 준비한 어슬픈 관광 정보를 서로 엮으니, 400년 전 무굴 제국의 찬란한 문명과 샤자한 황제의 안타까운 사랑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굴 제국은 시작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무굴’이라는 이름은 ‘몽골’의 인도식 발음인데, 건국자 바부르는 칭기즈칸과 티무르라는 두 전설적인 정복자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자부심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만적인 정복자가 아닌 세련된 통치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굴은 페르시아어를 공정한 언어로 택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지식과 교양의 상징이었고,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거대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립적인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무굴은 몽골의 강인함에 페르시아의 우아함을 입힌 독보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름다운 장미, 몸타즈 마할**  
이 찬란한 제국의 황금기를 이끈 샤자한 황제의 기념비적인 타지마할은 사실 한 여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07년, 아직 ‘쿠람’ 왕자로 불리던 15세의 소년은 아그라 성 근처 시장 축제에서 한 소녀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귀족의 딸인 ‘아르주만드 바누 배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에 능통했던 총명한 그녀에게 황제는 결혼과 함께 ‘몸타즈 마할(궁전에서 가장 선택받은 자)’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그냥 왕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가장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무굴 제국의 모든 귀족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거행되었고, 축하 행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황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지만, 열네 번째 아이를 낳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타지마할 북쪽 모스크 앞에 선 김영석 동문. 양파 형태의 흰 돔들과 연꽃 무늬 장식, 벽을 수놓은 쿠란의 아랍어 부조, 피렌체 장인들이 전해줬다고 하는 석조 상감 기법의 문양, 팔각형의 첨탑 등은 사암과 대리석의 조화와 함께 동서양의 건축이 망라된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낸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금기 이끈 샤자한 황제  
열네 번째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난 왕비 위해  
인류의 위대한 유산 타지마할을 건축했지만  
아들에 의해 성에 유배돼 8년을 바라만보다  
죽고나서야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곁에 안치

임종 전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묘지를 지어 가끔 나를 방문해 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샤자한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을 만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년 동안 전 세계의 보석과 대리석을 끌어모아 타지마할을 지었습니다.

타지마할은 단순한 순백색 대리석 건물이 아닙니다. 벽면의 화려한 꽃무늬

는 대리석을 파내고 그 자리에 중국의 옥, 이집트의 귀석, 스리랑카의 사파이어 등을 정교하게 박아 넣은 ‘피에트라 두라(Pietra Dura)’기법의 정수입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대리석의 색이 변하고 보석이 반짝이는 모습은 가히 ‘지상의 천국’이라 할 만합니다.

행복했던 처소가 슬픈 감옥이 된 아이라니  
그러나 권력의 세계는 냉혹했습니

다. 타지마할이 완공될 무렵, 셋째 아들 아우랑제브가 반란을 일으켜 장남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아그라 성에 가택 연금시킵니다. 샤자한은 자신이 태어난 아그라 성의 ‘무삼만 부르즈(Musamman Burj)’라 불리는 팔각형 탑 모양의 건물에 갇혀, 타지마할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8년이라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샤자한이 갇혔던 무삼만 부르즈는 사실 그가 살아생전 아내 몸타즈 마할을 위해 가장 화려하게 꾸민 사랑의 처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그 행복한 공간이, 말년에는 아내의 무덤을 하염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고독한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굴 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쇠한 황제는 창가에 앉아, 멀리 야무나 강 너머로 반짝이는 아내의 묘지를 바라보며 눈물짓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깝지만 결코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한 그리움이 그의 마지막을 채웠습니다. 1666년, 마침내 숨을 거둔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몸타즈 마할의 곁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자랑하던 타지마할 내부에 샤자한의 관이 약간 높게 덧붙여지며 역설적으로 그 대칭은 깨졌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를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사랑’이라 부릅니다.

아그라 성채의 붉은 사암 벽을 만져보며 저는 그 차가운 돌 속에 담긴 뜨거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만들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과 인생의 찬란함, 그리고 덧없음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기록이 여러분에게도 인도의 신비로운 향기와 함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SNU ISP 영예의 장학생들



**Gloria Cho**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Biological Sciences

Gloria Cho is an undergraduate Biological Sciences major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oncentrating in Molecular,

### Restoring Dignity and Global Health Equity through Dentistry

Cellular, and Developmental Biology. With a long-term goal of becoming a dentist dedicated to global health equity, she brings a cross-cultural perspective—born in Canada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that shapes her academic journey and commitment to service. Her passion for dentistry was transformed during a dental brigade in Panama. Assisting in restoring a patient's front teeth in a resource-limited classroom clinic, she saw firsthand how oral health restores

dignity, confidence, and quality of life. This experience solidified her view of dentistry as a vehicle for social change rather than just a clinical profession.

Outside the classroom, Gloria engages in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healthcare and community service. She has worked in international brigades, assisted in physical therapy clinics, and supported patients through hands-on volunteering. These experiences strengthened her ability to work with

diverse populations and serve with empathy and professionalism.

Her leadership is reflected as Recruitment Chair for Dental Global Brigade, where she led outreach for international missions. She also serves as a math tutor and Korean school teacher, combining mentorship with cultural outreach. Gloria aspires to become a globally minded dentist, advancing oral healthcare access in underserved communities worldwide.



**Lauren Lee**  
UC Berkeley | Legal Studies

Lauren Lee is a freshma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ursuing a pre-law track in Legal

### Advocating for Sustainable Justice and Global Change

Studies. She is a recipient of the Regents' and Chancellor's Scholarship, an honor reserved for the top 1% of applicants. As an R&C scholar, she organizes the Regents' and Overnight host program, recruiting future scholars through information sessions and campus tours. Additionally, Lauren is a member of the Cal Running Club, where she develops resilience and teamwork through trail runs. Lauren is dedicated

to global outreach and sustainability, having accumulated over 1,0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Her efforts include organizing disaster relief for earthquake survivors and providing English tutoring to underprivileged communities in Türkiye, Nicaragu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she conducted three years of award-winning agricultural research focused on combating salinization, which resulted in two published manuscripts.

In her free time, Lauren reconnects with her Korean heritage through media and traditional recipes. She is tremendously honored to receive the SNUAA USA scholarship, which supports her goal of becoming an immigration lawyer. Through specialized legal advocacy, Lauren aspires to represent and empower individuals who face barriers in speaking up for their beliefs and rights within the legal system.



**Matthew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Graphic Design

Matthew Lee is a sophomore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majoring in Graphic Design

### Harmonizing Imagination and Practicality through Design and Business

with a minor in business. His journey began in 7th grade while volunteering at a nursing home. Observing elderly residents struggle with mundane tasks, he began questioning how environments could be redesigned to improve life for both residents and caregivers. This desire to help people, combined with a love for art, inspired his first steps into design.

Throughout this journey, Matthew has been recognized in state and national art contests. He also serves

as an undergraduate teaching assistant for a statistics course at UIUC, where he integrates design with education by creating digestible models and visualizations. Helping students grasp complex concepts taught him to adapt to unique needs, transforming difficult ideas into accessible information. This experience revealed how interconnected his design goals are across various fields.

Matthew's passion for creation continues to grow, leading him to pursue

business alongside design. He aspires to harmonize imagination with practicality, converting vision into action through entrepreneurship.

He aims to introduce a new side of design that exemplifies its true purpose of solving problems.

As an SNUAA Undergraduate Scholarship recipient, Matthew is deep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explore new paths and grow as a designer and leader.



**Mia Martinez**  
Northwestern University  
Journalism and Political Science

Mia Martinez is a first-year stud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 from Los

### Connecting Cultures through Language and Diplomacy

Angeles, specializing in Journalism and Political Science with a minor in Korean. Her passion for language began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K-pop and K-dramas, which later led her to study Mandarin, earning the top student award in 11th grade.

Although her Korean mother grew up with limited exposure to her heritage language, Mia's dedication allowed her to surpass those linguistic barriers and

reconnect with her roots.

In 2024, Mia's dream of returning to Korea was realized as a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Scholar.

She spent seven weeks in Seoul, living with a host family and studying at Hanyang University. This immersive experience inspired her to pursue a career as a diplomat or journalist.

At Northwestern, Mia is a Posse

Scholar, a Sheil Catholic Scholar, and a Kaplan Humanities Scholar. She is actively involved in the Club Tennis Team and the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KASA), where she embraces her heritage.

As an SNUAA-USA Scholarship recipient, Mia is deepl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Seoul and experience life at Korea's premier university.



**Arrim Jung**  
Carnegie Mellon University  
Film and Visual Media

Arrim Jung is a writer and film director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pursuing a Bachelor of Humanities and Arts in Film

### Fostering Global Empathy through Film and Dialogue

and Visual Media along with Dramaturgy. A member of the Phi Beta Kappa Honors Society, Arrim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 young age. Learning English through movie subtitles exposed her early to language barriers, which she eventually overcame through music and visual art. Captivated by film's ability to integrate multiple mediums, she creates stories aimed at increasing empathy across diverse cultures, abilities, and worldviews.

Beyond filmmaking, Arrim engages i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dialogue. She serves as Co-President of her campus's Veritas Forum chapter, leading discussions on life-shaping questions such as the impact of AI and religious divergence. Her professional experience includes work with Nancy Mosser's Casting Agency and Kyra Sedgwick's Big Swing Productions. Currently, she is pursuing an Accelerated Master's degree in Entertainment Industry Management

through Carnegie Mellon's Heinz College.

Through this dual-city program and the SNUAA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Arrim seeks to understand the industry's business side while strengthening her connection to her Korean heritage. She is deeply grateful to the SNUAA Program for the opportunity to enrich her summer through academic and cultural exploration, furthering her mission of cross-cultural storytelling.

## SNU ISP 영예의 장학생들



**Isaac Kim**  
UC San Diego  
Mechanical Engineering

Isaac Kim is a Mechanical Engineering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driven by a passion for

## Engineering Impactful Solutions through Iterative Design

applying engineering principles to real-world challenges. His long-term goal is to build reliable, efficient, and impactful technologies through thoughtful design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is interest began with hands-on problem-solving, such as assembling Gundam models and mastering Rubik's Cubes, which taught him patience, precision, and adaptability. These early experiences fostered a mindset of embracing mistakes and refining solutions through iteration.

At UC San Diego, Isaac has strengthened his foundation through rigorous coursework and project-based learning. As a member of the Combat Robotics Club, he applies mechanical design concepts in collaborative, time-constrained environments focused on failure analysis and testing. Furthermore, his background in Boy Scouts significantly shaped his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Leading service projects taught him to plan and coordinate

teams—skills that translate directly to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Beyond academics, Isaac maintains a balance between his physical well-being and personal endeavors through a consistent gym regimen and intramural basketball.

He believes engineering is about the impact solutions can achieve and is eager to contribute his technical skills to environments that value innovation and reliability.



**Jennifer Hyekyeong Lee**  
Princeton University  
Neuroscience

Jennifer Hyekyeong Lee is a senior at Princeton University, majoring in

## Bridging Neuroscience and Mental Health Advocacy

Neuroscience with a minor in Cognitive Science. Growing up overseas, she developed a deep sense of pride and connection to Korea, inspiring her to view learning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At Princeton, her studies focus on human cognition, perception, and emotion.

Her senior thesis explores how the brain represents meaningful visual information by analyzing neural activity in prefrontal and visual regions. This research allows

her to connect academic concepts with hands-on inquiry into the brain's role in perception.

Beyond academics, Jennifer is dedicated to leadership and service. She serves as Vice President of Programming for SHARE Princeton, supporting sexual harassment education and advocacy.

Additionally, she worked as a Streicker International Fellow in Seoul with The Korean Council, contributing to a digital archive for survivor-centered narratives.

Throughout her time at Princeton, she has remained engaged in cultural education and community-based volunteering.

Looking ahead, Jennifer aspires to pursue a path integrating neuroscience, mental health advocacy, and cross-cultural engagement.

She aims to contribute to work that centers empathy and care, serving as a vital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Joy Lee**  
Northwestern University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hange

Joy Lee is a stud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 majoring in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hange with a minor

## Advocating for Equit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

in Business Institutions. Growing up in an immigrant family, she became acutely aware of how language barriers and limited resources leave families vulnerable within complex legal systems. These experiences shaped her aspiration to pursue a legal career centered on advocacy, justice, and service.

At Northwestern, Joy has pursued an interdisciplinary path integrating law, busines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Through coursework in economics and public policy, she has focused on how

institutions function and how they can be redesigned to better protect marginalized populations. She believes effective advocacy requires both legal expertise and a strong understanding of how economic systems operate in practice.

Joy has gained hands-on experience through legal and business internships globally. Her legal work involved research on data governance and athlete human rights, contributing to policy discussions surrounding Olympic protections. In parallel, her business

experiences strengthened her analytical skills while reinforcing her desire to work directly with people in vulnerable positions.

On campus, Joy serves as Treasurer of Quest+, supporting first-generation and low-income students, and as Vice President of Risk Management for Alpha Chi Omega.

As an SNUAA USA Scholar, she is committed to a lifelong career of justice and service within the Korean community and beyond.



**Hannah Lee**  
UC Davis  
Statistics

I am a second-year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majoring in Statistics with an emphasis

## Advancing Preventative Healthcare through Data Science

on machine learning. Maintaining a 3.94 GPA, I am also fluent in Korean and English, evidenced by my Level 6 TOPIK score. My interest in data science and healthcare was sparked by witnessing my grandmother's high-risk surgery. This inspired me to explore how data-driven approaches can enable earlier diagnoses and improve patient outcomes.

Beyond academics, I actively participate

in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clubs.

I recently led a project predicting bike-share user types in San Francisco. When my team lost members near a deadline, I applied leadership skills gained as a Logistics Officer in Air Force Junior ROTC to redistribute tasks and maintain morale.

We successfully completed the high-quality project on time, reinforcing the

value of adaptability and teamwork in overcoming setbacks.

Moving forward, I plan to pursue graduate studies and a career as a machine learning engineer specializing in preventative healthcare technology. Receiving the SNUAA-USAScholarship will allow me to expand my technical perspective and cultural understanding, preparing me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a technologically driven world.



**Jaeyi Song**  
Columbia University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Research

Jaeyi Song is an Eggleston Scholar and sophomore at Columbia University, pursuing a B.S. in Industrial Engineering

## Optimizing Consumer Behavior and Industrial Growth

and Operations Research. Her academic interests lie at the intersection of optimization, consumer behavior, and economics. Post-graduation, Jaeyi aims to pursue a JD-PhD to further explore marketing and decision science. At Columbia, she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across operations research and applied economics. She studies the "pain of purchase" by analyzing behavioral data to understand complex decision-making and pricing strategies.

Additionally, Jaeyi researches economic complexity and industrial growth, building quantitative models to understand regional development.

Professionally, Jaeyi has gained diverse experience in supply chain logistics, data analytics, and growth marketing. Most recently, she served as a supply chain optimization intern at The Coca-Cola Company, where she developed dynamic cost models to optimize prices. Jaeyi also possesses a personal passion

for entrepreneurship, having interned at several early-stage CPG startups in roles ranging from user retention analysis to packaging design. These experiences have fueled her ambition to launch her own startup in the future.

Outside of her professional pursuits, Jaeyi enjoys skiing, golfing, and spending time with her poodle. She is deeply grateful to SNUAA for this scholarship and looks forward to giving back by mentoring future generations.



<i>SNUAA Samick Scholarship</i>	<b>Arrim Jung</b>
<i>SNUAA Kwonshik &amp; Sungsook Kim Scholarship</i>	<b>Gloria Cho</b>
<i>SNUAA Hahn-Paek Scholarship</i>	<b>Hannah Lee</b>
<i>SNUAA Scholarship</i>	<b>Isaac Kim</b>
<i>SNUAA Lee &amp; Ro Water Infrastructure Scholarship</i>	<b>Jaeyi Song</b>
<i>SNUAA Kwang &amp; Kook-Wha Koh Science/Engineering Scholarship</i>	<b>Jennifer Lee</b>
<i>SNUAA Scholarship</i>	<b>Joy Lee</b>
<i>SNUAA Kyung Ae Lee Leadership Scholarship</i>	<b>Lauren Lee</b>
<i>SNUAA Hyosook Hwang Women's Leadership Scholarship</i>	<b>Mia Martinez</b>
<i>SNUAA Scholarship</i>	<b>Matthew Lee</b>

## 피겨 스케이팅과 서예, 평생을 바친 두 예술의 관계를 사색하다 아하! 몸이 빙판 위에, 붓이 종이에 그려낸 ‘선의 예술’이었네



이유성 (사범대 57)  
(뉴욕 · 서예가)

5년 전, Long Island University에서 예술사를 가르쳤던 명예교수 한 분이 『100 New York Calligraphers』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2015). 뜻밖에도 그 책의 한 엔트리에 나의 프로필과 작품 사진이 함께 실리게 되었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과 왔다고 표현하는 세 개의 우물(피겨스케이팅, 서예, 그리고 생물학)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여 주었고, 내가 ‘Facebook.com’에 올리는 글과 사진마다 빠짐없이 ‘좋아요’를 누르고 짧은 감상을 남겨 주는, 참으로 성실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며칠 전, 나는 피겨스케이팅과 관련된 오래된 사진 열 장 남짓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연습하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을 찬찬히 보더니, 내가 “다재다능하다”고 격려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피겨스케이팅은 얼음 위에서 선(line)을 그리며 춤을 추는 예술처럼 보입니다. 서예가가 붓으로 표현하는 선과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 분야 교수님의 질문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피겨스케이팅, 서예, 그리고 생물학이라는 세 우물을 파 왔지만, 그 사이의 관계를 깊이 성찰해 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East River 강변 도로를 걸으



1964년 한국에서 처음 문을 연 실내 빙상장인 동대문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회 아이스카니발 '스케이트 타는 춘향전'에서 이 도령 역을 맡아 공연하는 이유성 동문. 오른쪽 사진은 이 동문이 쓴 서예 작품.



“뉴욕의 예술사 교수님이 내 페이스북을 보고 질문을 보냈다. 이스트 리버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데 어느 순간 머리 속에 환하게 불이 켜진듯...”

면서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굴러 보았습니다. 걷고, 생각하고, 다시 걷는 동안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둘러 생각의 초안이 사라지기 전에 적어 내려갔고, 밤늦게까지 녹슨 머리를 다시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 스스로도 “아,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구나”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한 편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두 예술은 ‘물의 변주곡’입니다. 서예는 액체 상태의 물(먹물)을 이

용해 종이 위에 선을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은 고체 상태의 물(얼음) 위에서 몸으로 선을 그립니다. 온도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물’이라는 동일한 바탕 위에서 펼쳐지는 ‘선의 예술’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둘째로, 선의 역동성과 리듬을 공유합니다. 붓끝에서 나오는 굵고 가는 변화, 속도감, 그리고 멈춤의 미학은 피겨 선수가 얼음 위에서 그리는 활주 궤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단순히 선을 긋는 기술을 넘어,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리듬과 선율이 담긴 ‘멜로디가 있는 선’을 지향합

니다. 셋째로, 영혼을 담은 몰입의 과정입니다. 붓을 잡은 서예가나 스케이트를 신은 선수나,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온 정신과 영혼을 퍼포먼스에 쏟아붓습니다. 붓과 발끝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연기자의 내면을 외부로 표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로, 생물학적으로 완성되는 정교한 통제입니다.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유려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명령을 내리고 근육계가 이를 섬세하게 실행하는, 고도로 훈련된 ‘신경-근육 시스템’의 합작품입니다. 손끝과 발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통제해야 하는 이 과정은 완벽한 생물학적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로, 시간성과 일회성(ephemerality)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궤적은 얼음 위에 잠시 남았다가 사라지고, 서예의 붓놀림 역시 그리는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단 한번의 행위입니다. 두 예술 모두 순간의 집중과 되돌릴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섯째로, 훈련의 축적이 자유로움으로 전환됩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수십 번의 반복 훈련과 몸에 각인된 규율이 존재합니다. 규율을 완전히 체화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예술의 본질입니다. 서예를 쓸 때의 정적인 평온함과 피겨를 탈 때의 동적인 해방감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예술을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성취의 기쁨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움의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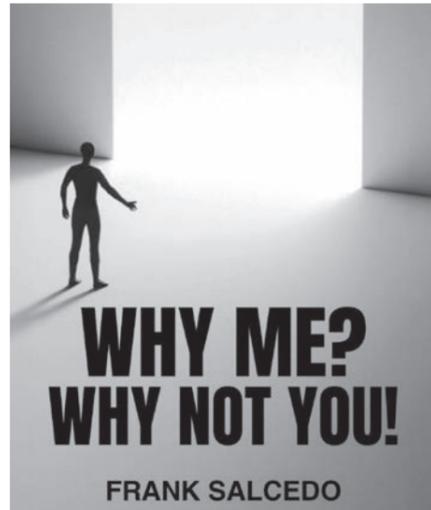
어때요? 이만하면 관찮게 들리죠? 강변을 걸으며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는 무언가 소중한 진리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척 후련해졌습니다. 아직 제 생각이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 같아 참으로 즐거운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 Why me? There is no why



김지영 (사대 69)

충을 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죠.”  
 “바로 그거야. 이 순간이라는 호박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그저 그럴 뿐) ‘왜’라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지. (There is no why.)”  
 빌리라는 사내는 22살 때, 2차 대전 말 독일 드레스덴 공습 때 처참한 살육의 현장을 목격한 극심한 트라우마로



2025년 말 출간된 프랭크 살세도의 책 『Why Me?: Why Not You?』의 표지. 걸프전 참전 용사였던 저자가 PTSD와 신체적 부상, 삶의 붕괴를 겪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왜 나라고 안 되겠는가”라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다룬 회고록이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을 제법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터다. 대상도 특정할 수 없고 메아리도 있을 법하지 않은 원망의 말이다.  
 빌리 필그림이라는 44세의 미국인. 딸 결혼식 날 밤, 외계인들에게 잡혀간다. 영문을 모르는 채 그들의 비행접시 안으로 끌려들어 가며 그는 말한다.  
 “Why me?” “나를, 왜?”  
 트랜스팔마도르라는 먼 별에서 온 외계인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한다. “지구 놈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왜 너냐고? 왜 우리냐고 물어보지. 왜, 왜냐고 물어? 이 순간은 그저 이렇게 있을 뿐이야. (... this moment simply is.) 자네는 호박(amber) 속에 갇혀서 박제된 곤

가끔 헛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가는 검안전문의(optometrist)였다.  
 그는 그렇게 끌려가서 트랜스팔마도르의 동물원에 지구인의 표본으로 전시된다. 비슷하게 잡혀온 여자 지구인과 합방해 아이까지 낳고 그저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지구로 돌려보내진다. 그의 시간으로는 몇 년이지만 외계인의 시간으로는 ‘한 순간’. 그는 잡혀간 그 순간 그곳에서 다시 지구로 온 것이다.  
 커트 보네거트라는 미국 소설가가 1969년에 출간한 ‘제5도살장(Slaughterhouse-Five)’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가 자신이 겪은 생지옥의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로, 보네거트는 22세에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전쟁 말기 드레스덴 폭격 당시 죽은 독일인 시체 발굴 처리반원이었다.  
 빌리가 그의 온 세상이 뒤집히는 그 순간에 내뱉은 두마디 탄식, “Why me?”  
 그것이 이 지구별에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중생들의 ‘전도몽상(顛倒夢想)’, 세상을 거꾸로 보고 꾸는 꿈이다. 우선 ‘나(me)’라는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는 주체이며 가장 소중한 주제이다. 또 ‘왜(why)’라는 물음 속에는 세

상 모든 불행한 일들이 나 바깥의 어떤 존재 또는 힘의 탓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보다 한 차원이 높은 외계인의 눈으로 보면 지구인이 그렇게 집착하는 ‘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다 인연 따라 생겨서 한 시도 그대로 머물지 않는 무상(無常)한 그 무엇일 뿐.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누군가의 탓으로 이해하려는 본능적 습성이 뜬금없다. 4차원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까지 훤히 보이는 외계인에게 빌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분명해서 “왜”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다.  
 “그저 이렇게 있을 뿐(...this moment simply is)”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여여(如如)하다’고 한다. 우리가 읽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여리실견(如理實見)’,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생각이 만든 나를 꼭 붙잡고 있는 한, 중생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대로 본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벗어나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말대로 ‘눈 녹은 물이 또 눈을 씻어내는 것처럼(Wash yourself of yourself).’

## 서울대 동문 합창단

지휘 장진영 (음대 88)  
 반주 조미라 (음대 99)  
 단장 김홍일 (치대 62)

###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나성 영락교회, 소망관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문의> 323-428-6633

## 하선호 보철치과전문의

# Seonho Ha Prosthodontics

### 하선호 (치대 81)

213-365-1008  
 297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06



김학천 (치대 71 · 남가주)

# 볼리바르의 악몽 ‘베네수엘라’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남미 마라카이보 호수 위의 원주민 마을을 보고 베네치아를 떠올리며 ‘작은 베네치아’라 불렀다. 300년 뒤 이곳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시몬 볼리바르는 특권 대신 해방투쟁을 택하고 남미 전역을 누볐다. 그는 통일의 꿈을 품었지만 나라가 갈라지며 좌절했고, 후대는 그의 이름을 따 ‘볼리바르 공화국’을 세웠다.

다시 100년 후, 마라카이보 호수 주변에서 솟구친 검은 액체를 본 사람들은 놀라 외쳤다 ‘물이 불타고 있다!’ 석유였다. 이후 ‘석유의 나라’로 변영했으나, 손쉬운 달러는 다른 산업을 말려 버렸다. 농업과 제조업이 붕괴하고 경제는 오직 석유에만 의존했다. 정치인들은 미래 대신 수익을 나눠 주며 인기 기대었고 축복은 점차 저주로 바뀌었다.

같은 시기,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여 준 오케스트라 운동,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태어났다. 이 음악은 단지 기술 습득의 대상이 아니

라 존엄을 회복하는 언어이자 공동체를 다시 잇는 약속이었다. 그 속에서 한 소년이 자라났다. 오늘날 세계무대에 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그의 지휘봉은 이곳이 석유만의 나라가 아니라 꿈을 연주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이 실험은 전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음악교육 운동이 되었다. 이곳이 바로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의 베네수엘라, 정식 국호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워 집권하며 볼리바르의 이름을 빌려 ‘볼리바르 혁명’을 선언했다. 초기에는 고유가(高油價) 덕에 복지는 확대됐지만, 독재와 포퓰리즘 속에서 제도는 무너지고 석유 의존 경제는 붕괴했다.

그가 죽고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고 한때 최고 부국이었던 나라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스페인보다 높았고, 수도 카라카스의 쇼핑물은 마이애미보다 화려했으며 유럽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왔던 나라 베네수엘라. ‘물에서 불이 나는 액체’, 석유로 낙원으로 만드는 듯 보였지만 그 낙원에서 사람들은 쓰

레기를 뒤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한때 부국이었던 나라가 굶주림과 탈출 행렬, 마약과 범죄와 혼란으로 추락하게 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볼리비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시몬 볼리바르.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진짜 자원이 석유가 아니라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고, 자원의 저주, 제도 파괴, 포퓰리즘, 부패가 겹치면서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엘 시스테마 출신 음악가들은 전 세계 오케스트라로, 그리고 다른 분야의 인재들 또한 전 세계로 흩어졌다.

노르웨이가 석유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든 반면, 베네수엘라는 같은 자원으로 과국을 만든 그 차이는 제도와 비전이었다. 볼리바르가 꿈꾸었던 나라는, 그의 이름을 빌린 권력자들에 의해 악몽이 된 것이다. 물 위에 세운 아름다운 나라가 불로 쓰러지고 그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찌기 태평성세를 누리던 당나라 현종은 말년에 ‘이제는 즐겨도 된다’며 재정을 풀자 ‘오늘의 풍악은 인기를 얻겠으나, 내일의 세금은 원망을 부를 것입니다’라고 한 충신의 간언은 묵살되었다.

결국 재정이 비어 가던 끝에 안사의 난이 터졌고, ‘어제의 음악은 사라지고 오늘의 피로 대가를 치른다’는 말만 남았다. 이 모두가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파산이 되지 않도록 정치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내집 마련에서 그린란드까지

이민 와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한 공대 선배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선배는 미국에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집부터 사야 한다며, 다운페이할 돈이 부족하면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했다. 반신반의하며 구입한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며 값이 몇배 뛰었다. “부동산은 사 두면 결국 남는다”는 그의 말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이 나라의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문장처럼 남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더 이상 변방의 섬이 아니다.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자 군사 전략의 핵심, 희토류와 에너지 자원을 동시에 품은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지다. 얼핏 즉흥적 발언처럼 들리는 트럼프의 언급은 사실 미국 건국 이후 반복돼 온 ‘전략적 공간은 사서라도 확보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독립 직후부터 스스로를 ‘확장하는 국가’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그 방식은 유럽 열강의 전통적 제국주의와는 달랐다. 무력 점령보다 구입과 조약, 다시 말해 거래를 통한 확장이 중심이었다. 1803년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

애나 매입은 그 상징적 출발점이다. 미국은 단 1,500만 달러로 영토를 두 배로 늘렸고, 미시시피강과 북미 내륙 교통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는 신생 공화국을 대륙 국가로 탈바꿈시킨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이후의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넘겨받았고,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와 남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다. 전쟁이 개입되기도 했지만, 최종 귀결은 언제나 처럼 조약과 금전적 보상(1,825만 달러)이었다. 미국은 영토 확장을 ‘정복’이 아닌 ‘합법적 거래’로 정당화하며 국제

사회의 도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1867년 알래스카 매입은 오늘날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과 가장 닮은 사례다. 당시 러시아는 재정난과 안보 부담 속에서 알래스카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고, 미국은 720만 달러라는 험값에 북태평양과 북극으로 향하는 전략적 관문을 손에 넣었다. 언론은 이를 당시 국무장관에 빗대 ‘수여드의 어리석음(Seward’s Folly)’이라 조롱했지만, 알래스카는 훗날 에너지와 군사, 지정학의 핵심 자산으로 변모했다. 장기적 안목이 단기적 조롱을 이긴 대표적 사례다.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확장 방식은

달라졌다. 더 이상 대규모 영토를 매입하지 않았고, 대신 하와이 병합과 미·스페인 전쟁을 통해 해양 국가로 변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법과 탈식민주의의 확산으로 ‘영토 매입의 시대’ 자체가 막을 내렸다. 국가의 주권과 주민의 자결권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을 단순한 허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오늘날에도 국제정치의 본질, 즉 영토 대신 영향력을 사고파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사용권, 자원 개발권, 항만 운영권, 안보 제공과 경제 지원의 교환은 현대판 영토 거래라 할 수 있다. 그린란드는 바로 이 모든 요소가 응축된 공간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도덕보다 이해관계, 선언보다 힘의 계산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영토 확장사는 박물관 속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세계 질서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된다. 집이든 땅이든, 전략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서야 증명된다는 사실을.

<편집고문>



# 서울대 추론형 로봇 CES 2026서 빛났다

## 학생 서포터즈 92명 통역 가이드 역할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펀지 더미에서 물건을 골라 택배 상자에 담고, 상자를 옮겨 패키징을 마친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6’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서울대 장병탁(컴퓨터82) 교수가 이끄는 투모로로보틱스의 추론형 휴머노이드 ‘RB-Y1’의 시연 장면이다.

1월 5일부터 9일, 미국에서 열린 올해 CES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였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 판단 AI, 제조·물류 자동화 기술이 전시장 전반을 채우며 기술 경쟁의 무대가 ‘생각하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 옮겨갔음을 보여줬다.

RB-Y1은 사전에 입력된 동작을 반복하는 기존 센서 기반 로봇과 달리, 작업 대상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장 교수는 “하드웨어 기업뿐

아니라 AI 플랫폼과 부품 기업까지 함께 연합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시도”라며 “휴머노이드 경쟁력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과 협업 구조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 흐름을 배경으로, 산학협력단은 CES 2026에 참가해 학내 연구 기반 기술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도한 스타트업 공동관 ‘서울통합관’에 참여해 연구·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학생 서포터즈가 함께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서울통합관은 CES 2026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조성돼 서울 소재 스타트업 70여 개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됐다. 이 가운데 교내 연구 성과 기반 기술창업기업 5개사가 선발돼 전시와 투자 미팅, 기술 검증 등 사업화 활동을 전개했다.



투모로로보틱스의 추론형 휴머노이드가 CES 전시관에서 시연하는 모습.

서울통합관에는 서울대 출신 연구자와 학생 창업 기업들도 함께했다. 서울대기술지주가 투자한 나눔비타민(김하연·자유전공19)은 AI 기반 기부·ESG 플랫폼을, 솔리브벤처스(서주호·기계18)는 센서 기반 영유아 발달관리 에듀테크 솔루션을 선보였다.

에스엔디스플래이(이태우·화학86)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블루로빈(박재홍·항공우주91)은 자동심폐소생기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합한 응급 대응 기술을 공개했다.

송해수 기자

##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 전하는 희망 “삶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이상목 (해양81)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차량 사고로 목 아래 마비  
2027 IGGU 총회 유치 한몫

어떤 삶은, 설명하지 않아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한국의 스티브 호킹’ 이상목(해양81·사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만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의 이야기는 기적처럼 들리지만, 그는 그것을 기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일상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는 지진과 화산, 판구조 등 전 지구적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다. MIT와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여정을 마친 뒤, 2003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안정된 궤도에 올라서던 시기, 전환점은 불현듯 찾아왔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야외 지질조사 도중 차량이 전복되며 4번 척추가 손상돼 목 아래가 마비됐다. 의식을 잃은 채 응급 헬리콥터로 이송됐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무의식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했다고 회상한다. 죽음을 마주한 경험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죽음은 상상했던 것처럼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 정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

껴졌어요.” 이 경험은 그의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 살아 있으면서 집착하던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울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경험이 450년 전 몽테뉴의 사유와 닿아 있다고 말한다. 몽테뉴 역시 죽음의 문턱을 넘은 뒤, ‘밖에서 볼 때의 공포’와 ‘당사자가 느끼는 내적 평온’이 다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후 이 교수는 죽음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됐다.

사고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불편함은 없었어요. 비장애인 폐활량의 40%지만 말을 할 수 있고, 뇌를 다치지 않아 연구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키보드 대신 음성 인식 프로그램과 보조 입력 장치를 활용해 자료를 만들고, 논문을 읽고 썼다.

그는 재활을 의료·사회·영적 재활로 나누며, 마지막을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장애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인식은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는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전문성’이라고 단언한다. “장애 그 자체보다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



이상목 (해양81)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모교에 ‘계산과학 연합전공’을 만들었다. 장애 학생들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문제의식은 교육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학문 공동체 전체에 남는 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선(研究船) 공동 활용 제도 개선이다. 그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연구선이 일부 기관에만 묶여 대학 연구자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이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국제 학술 무대에서도 그의 역할은 분명했다. 그는 여러 차례 국제 지구과학 학술대회 유치전에 직접 나서 미국·영국·호주·러시아 등 선진국 도시들과의 경쟁 끝에 한국 개최를 다수 이끌었다. 특히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과학 분야에서 ‘올림픽’에 비유될 만큼 상징적인 국제지구물리학연맹(IUGG) 총회도 2027년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 24년 만에 아시아에서

는 두 번째로 개최된다.

그는 “학문적 위상과 국가의 연구 신뢰도를 함께 평가받는 자리”라며, “한국 학계가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몸의 조건은 달라졌지만, 학문을 바라보는 시야와 책임의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졌다.

정년을 앞둔 이후의 삶을 묻자, 그는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2000여 권의 독서를 이어왔다. “새로운 분야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특별한 이야기로 포장하지 않는다. 다만 “인생은 선택하지 않은 카드를 가지고도 끝까지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이라고 말하며, 주어진 조건 속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가를 되짚는다. 그의 시선은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머물러 있다.

이정운 기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뉴욕-조상근 (법대 69)  
워싱턴주-故고광선 (공대 57)  
필라델피아-신의석 (공대 53)

####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대 60)  
조지아-허지영 (문리대 66)

####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김일영 (의대 65)  
남가주-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김용재 (의대60)  
남가주-노명호 (공대 61)  
남가주-박종수 (수의 58)  
남가주-박창규 (약대 59)  
남가주-서동영 (사대 60)  
남가주-서치원 (공대 69)  
남가주-성낙호 (치대 63)  
남가주-심화섭 (약대 61)  
남가주-이기준 (법대 54)  
남가주-이병준 (상대 55)  
남가주-이홍표 (의대 58)  
남가주-벤자민 흥 (문리대 53)  
남가주-하기환 (공대 66)  
남가주-한귀희 (미대 68)  
남가주-한홍택 (공대 60)  
남가주-홍수웅 (의대 59)  
남가주-홍훈정 (음대 70)  
남가주-정상진 (상대 59)  
뉴욕-강에드워드 (사대 60)  
뉴욕-오인석 (법대 58)  
뉴욕-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대 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대 69)  
미시간-박용화 (의대 58)  
북가주-강재호 (상대 57)  
북가주-김정희 (음대 56)

북가주-민병곤 (공대 65)  
북가주-전혜경 (문리대 67)  
샌디에고-이면기 (공대 64)  
시카고-이용락 (공대 48)  
시카고-조규승 (문리대 72)  
워싱턴주-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이태영 (법대 60)  
조지아-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대 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 70)

####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故김병연 (공대 68)  
남가주-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故이종도 (공대 66)  
남가주-김수영 (사대 57)  
남가주-박인창 (농대 65)  
남가주-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정임현 (간호대 72)  
남가주-정재훈 (공대 64)  
뉴욕-김현중 (공대 63)  
미네소타-황호숙 (사대 65)  
북가주-박순희 (의대 60)  
북가주-남광순 (음대 64)  
북가주-차재철 (의대 62)  
루지애나-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 DC-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배성호 (의대 65)  
워싱턴DC-최재귀 (미대 63)  
조지아-김경숙 (사대 64)  
조지아-김태형 (의대 57)  
조지아-임수암 (공대 62)  
텍사스-이승화 (공대 03)

####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故오홍조 (치대 56)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대 65)  
김성호 (법대 64)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영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재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운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3)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재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근희 (의대 64)  
정희영 (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철룡 (의대 61)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황해룡 (공대 52)

####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종률 (사대 51)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병우 (문리대 69)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8)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최형무 (법대 69)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문성인 (공대 88)  
박현아 (공대 88)  
변우진 (문리대 81)  
송창원 (문리대 53)  
조형준 (문리대 62)

####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대 65)  
진성호 (공대 64)

####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故강영국 (수의대 67)  
故최의필 (의대 53)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한재은 (의대 59)

####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대 78)  
이은상 (상대 52)

####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대 43)  
故서휘열 (의대 57)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대 65)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성성모 (사대 67)  
이종석 (의대 54)

####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 하와이

故최경운 (사대 51)

####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b>남가주</b>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b>고윤석 (공62)</b> 김경숙 (생과70) 김경자 (미60) 김기형 (상70) 김동석 (음64) 김광주 (문69)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옥경 (사60)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b>노명호 (공61)</b> 리준무 (음65)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종수 (수의58) 박호현 (의52) <b>벤자민홍 (문53)</b> 서동영 (사60) 손학식 (공61) 송태진 (공79)	<b>신동국 (수의76)</b> <b>신건호 (법53)</b> 심계식 (사63) <b>양은석 (음70)</b>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b>윤석철 (상60)</b> <b>이방기 (농59)</b> 이범식 (공61) <b>이상강 (의70)</b> 이서희 (법70) 이중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채진 (문55) <b>임동규 (미57)</b> 장문섭 (공69) 장윤희 (사54) <b>장원경 (미73)</b> <b>정동주 (생72)</b> 정명자 (사56) 정 황 (공64)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천동우 (공63) 채규환 (법69) <b>한홍택 (공60)</b> 함승욱 (간호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b>황건홍 (공55)</b> <b>뉴욕</b> <b>강에드워드 (사60)</b> <b>고애자 (음57)</b> <b>권문웅 (미61)</b> <b>권영국 (상60)</b>	<b>권정덕 (의58)</b> <b>금영천 (약72)</b> <b>김광현 (미57)</b> <b>김복영 (간69)</b> <b>김용연 (문63)</b> <b>김욱현 (의59)</b> <b>김은희 (간78)</b> <b>김정희 (간69)</b> 김종원 (사58) <b>김현중 (공63)</b> 리준무 (음65) <b>민인기 (의67)</b> <b>박건이 (공60)</b> 박경희 (음57) <b>박은규 (약72)</b> <b>방중재 (의63)</b>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b>석창호 (의66)</b> 선종철 (의57) <b>손진태 (약67)</b> <b>송기인 (의60)</b> 송용섭 (농63) <b>송용길 (대학원69)</b> <b>신응남 (농70)</b> 양명자 (사63) <b>양성택 (상66)</b> 유은희 (간71) 윤영섭 (의57) <b>이대영 (문64)</b>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b>이상무 (의56)</b> 이영범 (공71) <b>이재원 (상58)</b>	<b>이재진 (의59)</b> <b>이홍우 (공50)</b> 함종금 (간66) <b>조남천 (사59)</b>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b>최형무 (법69)</b> <b>허영자 (약63)</b> <b>뉴잉글랜드</b> <b>김경일 (공58)</b> <b>김형범 (문57)</b> 이금하 (문69) 박종건 (의56) 현건섭 (공55)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b>미네소타</b> 문성인 (공88) 성욱진 (치87) 주한수 (수의62) <b>황호숙 (사65)</b> <b>미시간</b> <b>오동환 (의65)</b> <b>이성길 (의65)</b> <b>주명순 (간64)</b> 최병두 (의52) <b>하계현 (공64)</b> <b>북가주</b> <b>강재호 (상57)</b> 김갑균 (공60) <b>김중현 (공60)</b>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신규영 (공64) 윤성희 (사58)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춘임 (간67) <b>정한규 (의63)</b> 위창호 (의67) <b>최경선 (농65)</b> <b>한상봉 (수의67)</b> 홍병익 (공68) <b>황동하 (의65)</b> 황만익 (사59) <b>북텍사스</b> <b>송요한 (문73)</b> 최휘기 (공61) <b>샌디에고</b> <b>김인철 (약70)</b> 이문상 (공62) <b>임춘수 (의57)</b> <b>사카고</b> <b>김병윤 (문65)</b> 김성일 (공68) <b>김승주 (간69)</b> <b>김용주 (공69)</b> 김용환 (공71) <b>김현주 (문61)</b> 김정수 (문69) 민영기 (공65) <b>서상현 (의65)</b> <b>소진문 (치58)</b> 윤경순 (사61) 이덕수 (문58) <b>이동균 (공75)</b> <b>이준수 (공76)</b> <b>장윤일 (공60)</b>	<b>정성일 (공86)</b> 최희수 (문67) 한익일 (공62) 홍청일 (약57) <b>황치룡 (문65)</b> <b>오레곤</b> <b>박희진 (농78)</b> 한국남 (공57) <b>오하이오</b> 유덕영 (공57) <b>애리조나</b> <b>진명규 (공70)</b> <b>워싱턴주</b> <b>김인배 (수의59)</b> <b>김재훈 (공72)</b> <b>윤석진 (문64)</b> 이길승 (상57) <b>이정관 (농83)</b> 이회백 (의55) <b>정영자 (사60)</b> <b>최준한 (농58)</b> <b>워싱턴 DC</b>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b>김내도 (공62)</b> <b>김용환 (치88)</b> <b>김희주 (의62)</b> <b>나연수 (사54)</b> <b>박상근 (법75)</b>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후우 (문61) <b>서윤석 (의62)</b> 석군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b>이내원 (사58)</b> <b>이선구 (문65)</b> 이성배 (수의57) <b>이연주 (치88)</b>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b>정선휘 (공65)</b> <b>정원자 (농62)</b> 정평희 (공71) 최재귀 (미63) <b>홍영석 (공58)</b> <b>조지아</b>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b>김학수 (상65)</b>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b>이종석 (의54)</b> <b>임수암 (공62)</b> <b>정선휘 (공65)</b> 최종진 (의63) <b>중부텍사스</b> 이학호 (수의59) <b>캐롤라이나</b> <b>이종영 (음58)</b> <b>김현왕 (공64)</b> <b>조철영 (의68)</b> <b>테네시</b> <b>김경덕 (공75)</b> <b>김현 (문리93)</b> <b>권준희 (가정87)</b> 서갑식 (공70)	<b>텍사스</b> 천양국 (의63) <b>황명규 (공61)</b> <b>플로리다</b> <b>오석일 (의64)</b> <b>이만택 (의52)</b> 이민우 (의61) <b>이승화 (공03)</b> <b>필라델피아</b>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b>김영남 (의61)</b> <b>김현영 (수의58)</b> <b>서종민 (공64)</b> <b>손재욱 (가정77)</b> <b>신선자 (사60)</b> <b>신성식 (공56)</b> 안세현 (의62) <b>오진석 (치56)</b>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b>이성숙 (가정74)</b> 정덕준 (상63) 주기목 (수의68) <b>지홍민 (수61)</b> <b>최종무 (상63)</b> <b>하틀랜드</b> 정민재 (농70) <b>하와이</b> 이재형 (수의61) <b>휴스턴</b> 이길영 (문59) <b>진기주 (상60)</b> 하재청 (문67)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b>일반후원금</b> <b>남가주</b> 김기형 (상70) 600 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박종수 (수의58) 3,000 송태진 (공79) 5,000 윤석철 (상60) 2,000 양은석 (음70) 2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임현 (간72) 1,000 <b>뉴욕</b>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200 신응남 (농70) 3,000 조남천 (사59) 300 <b>뉴잉글랜드</b>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b>미네소타</b>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40,000 황호숙 (사65) 40,000 <b>미시간</b> 고광국/고국화 (공54, 56) 1,000 오동환 (의65) 200 <b>북가주</b> 황만익 (사59) 200 <b>샌디에고</b> 임춘수 (의57) 200	<b>사카고</b> 최희수 (문67) 100 서상현 (의65) 100 <b>오레곤</b> 박희진 (농78) 200 <b>오하이오</b> 故정운행 (문53) 500 <b>조지아</b> 이종석 (의54) 100 <b>워싱턴 DC</b> 강길중 (약69) 500 권철수 (의68) 200 이선구 (문65) 200 정평희 (공71) 200 <b>캐롤라이나</b> 조철영 (의68) 200 <b>테네시</b> 김경덕 (공75) 1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정77) 500 이성숙 (가정74) 300 <b>휴스턴</b> 진기주 (상60) 1,000 <b>장학후원금</b> <b>남가주</b> 김종섭 (문66) 10,0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은 (공60, 미61) 10,000 <b>미네소타</b> 김권식 (공61) 10,000 황호숙 (사65) 10,000 <b>미시간</b> 고광국/고국화 (공54, 56) 10,000 <b>워싱턴 DC</b> 이경애 (문58) 10,000 <b>테네시</b> 권준희 (가정87) 100 <b>플로리다</b> 오석일 (의64) 200 <b>커네티컷 지부 후원</b> 故유시영 (문68) 10,000 <b>Brain Network 후원</b> <b>워싱턴 DC</b> 오인환 (문63) 200 <b>광고후원금</b> <b>남가주</b> 강호석 (상81) 250 김자성 (의79) 50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240 송미선 (음89) 500 이명선 (상58)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중묘 (간호69) 240 이현림 (음81) 500 하기환 (공66) 1,000 <b>뉴욕</b> 석창호 (의66) 240 <b>미네소타</b> 황호숙 (사65) 1,000 <b>필라델피아</b> 손재욱 (가정77) 240 <b>지부분담금</b> 뉴욕 3,000 로키마운튼스 200 미네소타 550 북텍사스 550 워싱턴주 800 커네티컷 300 필라델피아 1,000 하틀랜드 550 휴스턴 550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THE Hair SHOP**<sup>®</sup>

1258 N. Highland Avenue  
Hollywood, CA 90038

**독고량**  
(공대 대학원 82)

**서정화**  
(음대 80)

**남가주 | CA**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자동차/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뉴욕 /NY.NJ**

**의료/병원**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옥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contact@snuuaa.org](mailto:contact@snuuaa.org)

**Quantum F&A**

Tel: 213-268-9562

520 S. Grand Ave., #1070  
Los Angeles, CA 90071

**최운화 (상대 78)**

**San Bernardino  
Foot Clinic**

**Sang D. Lee, D.P.M**

2095 N. Waterman Avenue  
San Bernardino, CA 92404

Office: 909-882-3800  
Fax: 909-882-3380

HABLAMOS  
ESPAÑOL

**이상대 (농대 80)**

# “십시일반의 정성,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하나로”



동문 한 분 한 분이 보내 주시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큰 힘**입니다.

## 동창회비 납부 및 문의 방법



동창회비 QR 코드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주소 (아래 참조)



Check payable to: SNUAA USA

**서울대 미주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25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b>TOTAL \$ _____</b>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현주소 _____			
<b>업소록 광고비</b>		업소명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5/7~2026/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업소 주소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디자인: 오은아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mailto: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mailto: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mailto: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mailto: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mailto: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mailto: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mailto: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mailto: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mailto: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등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mailto: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mailto: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mailto:jklee234@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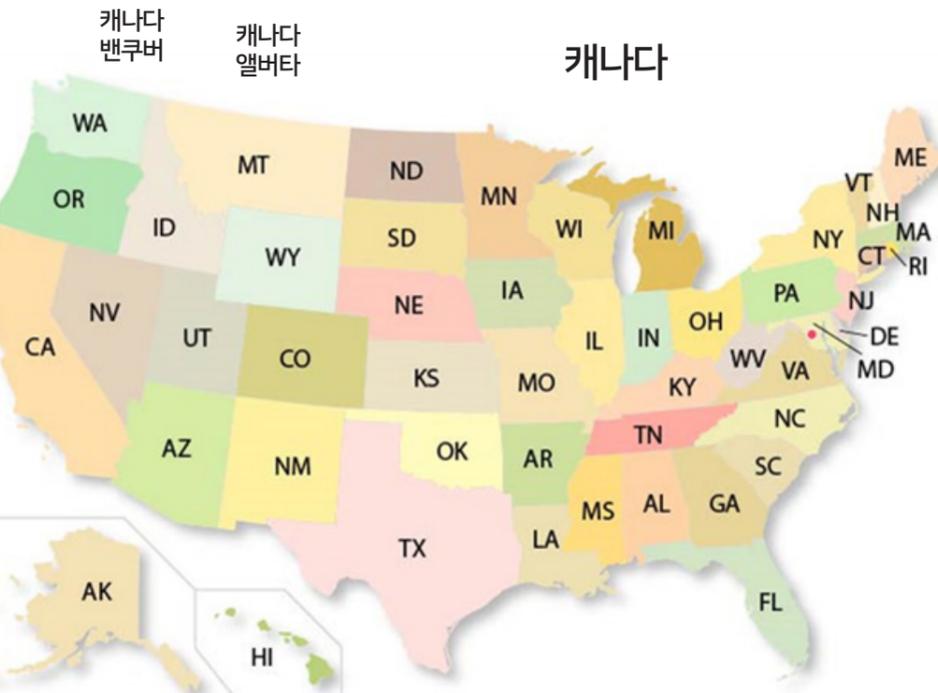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mailto: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mailto: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mailto:kim0hun@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mailto:mung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mailto: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mailto:kbs8717@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mailto: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mailto: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mailto:imtenor@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mailto: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mailto: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mailto:kevin@ikkimlaw.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mailto: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mailto: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mailto: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 962-5185  
[yuhn@fau.edu](mailto: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mailto:syeom@alum.utk.edu)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Kyung Hee Lee**  
Attorney at Law

Los Angeles Tel: (213) 385-4646 Email: [iminusa@iminusa.net](mailto:iminusa@iminusa.net)  
Irvine Tel: (949) 551-4646 Website: [www.iminusa.net](http://www.iminusa.net)  
Seoul Tel: (02) 565-9881



**한태호(케네스)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E-mail: [info@haanlaw.com](mailto:info@haanlaw.com)

Attorney • Litigator • Mediator • Realtor ®

\*가주 대법원 \*연방 제9항소법원 전지역 \*연방 대법원 협회원 \* 한국 및 미국 고문변호사.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변호사”**

**민사소송 · 상법**

민사소송/저당설정/차압  
매매/사기/에스크로 분쟁

**회사법·투자·지적재산**

회사설립/부동산 투자  
국제계약/채무/채권집행

**상해·보험 보상법**

대형사고/상해/낙상  
제조물책임/환경오염

**노동법·장애인 소송**

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연방/주 장애인 소송 대응

**가정법·리빙트러스트**

가정법/재산분배  
리빙트러스트/유언장

**한국재산·부동산법**

리스/퇴거/강제수용  
한국 재산 문의 환영

**한태호 (문리대 75)**

# 김홍일 교정치과 이찬용 보철치과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김홍일 (치대 62) 323-428-6633

이찬용 (치대 72) 213-383-2466

610 S. Harvard Bl., #101, Los Angeles, CA 90005

# 설란 (雪灘) 서예

<지도>

정균희 (의대 64)

<교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주소>

680 Wilshire Pl., Unit #42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386-8602

